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고삼차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 년 10월 29일(금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7	이름	김**	학번	2017	이름	성**
	학번	2017	이름	한**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노션 활용] https://www.notion.so/7a40a9a7a6f24811ae2a3b34f17a97d4</p> <p>지난 북클럽 활동을 하다 보니, 활동 기록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고민이 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다 기록하면 의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하고 있을 때, 노션이라는 협업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팀 프로젝트에서 각자의 활동을 공유하고, 동시에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클럽 활동에는 노션을 활용하여 더욱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8회간 북클럽 활동을 담은 노션 링크를 첨부합니다. (* PC에서 접속 해야 공유 팀프로젝트에 접속 가능합니다.)</p> <p>[활동 내용]</p> <p>도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읽고 책에 대한 감상문을 공유하고 각자 생각하는 ‘악’과 ‘평범함’에 대해 정의해보고 토론 후 앞으로의 토론에서 사용될 악과 평범성에 대해 각각 정의 내렸습니다.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며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마인드맵]</p>							

[토의 내용]

◆ 김** : 우선 책이 너무 어려웠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당황했다.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최대한 책 내용을 정리하면서 토론 내용에 대해 이해하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엄마랑 아빠, 어머니 친구분(군인) 등 주변 어른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다루기에는 생각이 어리고 삶의 경험이 적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이전에 ‘악의 평범성’에 대해 찾아보고 부정적으로 ‘그것은 변명이라고 확신했던’ 나의 생각이 섞였다고 생각한 것은 그 개념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나의 도덕적인 생각과 관념을 베이스로 봤기에 정확하게 볼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

책 내용은 내가 생각한 내용과 다른 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 ‘아이히만’이 생각한 것과 너무 달랐다. 나는 그를 깡패 같은 사람일거라 생각한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가 사이코패스 같은 이상한 사람일거라고 생각했고, 또 아이히만이 유복한 혹은 가난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모범생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사실 그는 아버지가 그저 회사원인(물락한 중상층)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학창시절에 공부는 못했다. 그가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학생 시절에는 공부를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점이 의아했다. 그는 ‘지시가 없으면 어떡하느냐’라는 생각과 함께 친구의 권유로 군대에 들어갔는데, 무슨 지시가 있어야 일을 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는 생각에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빡빡이’ 캐릭터가 생각났다. 그 캐릭터는 그저 윗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인물이고, 지시나 대장 없이는 어떤 행위도 못하는데, 그가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주인공을 만나서 착한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 대입되면서 ‘아이히만’도 히틀러가 아닌 좋은 상사를 만났다면 그러한 행위를 했을까 하는 생각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수송 행위가 유대인을 학살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고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가 안 것은 그 이후며, 그를 알고서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이 색다른 점이었고, 그것을 단 1년 만에 반제회의에 가서 생각이 변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점을 합리화한 것은 화가 났다.

또 자신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전혀 죄가 없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이히만이 ‘신의 앞에서는 유죄라고 느끼지만, 법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부분에서 본인이 악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의 문제에 본인이 접촉하지 않는다고 대답해서 너무 놀라웠다. (물론 그의 전반적인 태도를 볼 때 한나 아렌트와 같이 ‘거짓 혹은 허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발언, 생각을 한 자체가 놀라웠다. 당연하게도 죄가 없다고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런 아이히만에 대한 반전과 함께 악의 평범성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한 줄로 읽는 것보다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책에서 가장 머리를 관통한 내용은 ‘나치 정권 아래에서 예외가 있다는 점에서는 정상. 하지만 제 3제국 조건 하에서는 오직 예외들만이 정상’이라는 내용이다. 그것이 ‘악의 평범성’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구절이었다. 처음에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악’과 ‘평범성’이 서로 상반된 단어라고 생각해서 ‘평범이 악할 수 있다’ 혹은 ‘악은 평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이 부분을 읽고 나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갔다. 생각해보면 환경에 따라 평범 그 자체가 악이 될 수 있고, 그는 그러한 조건에서 본인이 평범했을 뿐(즉 그러한 조건에서 주어진 일을 했을 뿐/실제 그는 ‘반제회의’에서 양심적인 편이었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어서, 그런 과정에서 군인이셨던 지인분의 말을 들었는데, 독일이 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행위가 나쁜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만약에 그 전쟁에서 독일이 이겼다면 우리가 현대에서 그 행위를 나쁘다고 받아들였을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다. 만약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아이히만은 전범의 선두주자가 아닌 승자의 히어로였을 것이라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환경에 따라 같은 악의 평범을 나도 현재와는 달리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라는 점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과연 어떠한 종적인(인종) 부분만을 보고 ‘최고의 생물학적 재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한 것이 환경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평범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가 이후에는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본인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더 큰 학살을 하도록 일했는데 그는 그저 지시만을 따른 한나 아렌트가 말한 어떠한 시체라고 볼 수 있는지. 아이히만의 기억조차 모든 일이 아닌 본인의 경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들에 대해서만 작용했다는 것도 놀라운 포인트였는데 그는 정말 그 모든 행위를 본인의 업무의 성공으로만 봤다는 것이 정말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인지. 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는 위에서 말했듯 이번 활동을 통해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접하고서 무의식적으로 ‘악과 평범’ 반의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평범은 선함이 기본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평범은 선과 악과는 관련이 없는 부과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 내가 생각하는 평범성은 ‘그저 어떠한 그룹에서 중간에 속하거나 모두 생각하는 것이 평범일뿐 선하거나 악한 기준이 없으며, 그룹적 혹은 사회적 혹은 국가적으로 형성돼있는 그룹과 시기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그저 그곳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어떠한 개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악은 한 줄로 정리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본인의 이득이나 이익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도살장’이나 ‘도축장’등에서 최소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매일 악을 저지르는 평범성의 사람일까? 하는 생각에 기준이 되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아이히만의 죄는 ‘무사유-자신이 저지르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 X’라는 문맥에서 무사유만을 악의 기준으로서 들 때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알고서도 저지른 것은 악이 아니라는 것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악은 어떠한 정확한 개념이 있는 것보다는 그 정도에 따라서 나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 그 기준을 알기 전까지 토론의 참여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현재적으로 가장 내 기준에서 적합한

이 악에 대한 정의(본인의 이득이나 이익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행위/ 무사유)를 기준으로 이후 활동에 참여하면서 기준을 찾아나가려고 한다.

◆ 성** : 제8장,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의무를 읽으면서 악의 정당화 합리화에 대해 많이 느꼈고, ‘맹목적인 복종 또는 그가 시체들의 복종이라고 불렀던 미덕과 악덕을 차례로 강조했다.’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다. 복종을 했던 사람에게 맹목적인 복종은 미덕이었고 복종을 당했던 사람에게는 악덕이었음을 정리해주는 말처럼 느껴졌다.

저자인 한나 아렌트는 제3국의 악을 ‘제 3국에 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악을 인식하게 되는 특질을 상실했다. 공범자가 되지 않으려는 유혹에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배워버렸다.’로 표현한다. 이런 제3국에 상황에서 세워진 법이 진정한 법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아이히만은 경찰과 법정에서 “의무를 준수했다.”, “명령을 지켰을 뿐 아니라 법을 지키기도 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 했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의무’와 그가 지킨 ‘명령’은 무엇일까? 시체로서 복종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전쟁(제3국)에 법을 지켰다고 법 앞에서는 죄짓지 않았지만 신 앞에서는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법이 정의를 대변 해주지 못하는 전쟁 상황에서 양심을 저버린 아이히만은 법을 변명의 도구로만 사용했다. 전쟁 상황에서 공무원이었던 아이히만은 나라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가 옳은 것이었음을 재판과정에서 심판하지 않았지만, 그의 양심을 버린 채 행동했던 악한 행위들이 결코 옳다고 볼 수 없다. 전범재판에서 아이히만이 군인공무원으로서의 명령을 이행한 부분을 심판 받지 않은 것은 감정적으로는 분노하고 법은 평범함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전쟁 시기 군인이었으면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에 대한 물음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럼 ‘전쟁 시기 명령을 따른 아이히만과 다른 군인들에 차이는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 아이히만의 행위에는 ‘양심’이 부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4장 증거와 증언에서 탈옥 후 아이히만의 행동, 재판에서 협조를 보인 이유를 읽으면서 ‘아이히만은 평범한 인간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재판에서 놀랄만한 협조를 한 이유로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히만이 익명으로 지내는 것에 대해 상당한 지겨움을 느꼈다고 한다. 탈옥 후 아이히만의 유일한 보상은 자신의 정체를 이미 드러내 보인 나치스 광역단체 요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라고 한만큼 아이히만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에 많은 행복을 느꼈던 것 같다.

두 번째는 독일의 청년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 아이히만은 젊은이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전쟁(독일 제국에 강요된 전쟁)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의 아버지가 한일에 대해 결백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유를 들으면서 정말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전쟁시절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갚겠다는 방자한 태도와 그런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오만한 생각. 그 속에 ‘반성’, ‘양심’이라고는 한 톨도 태도를 보며 ‘이제야 시체놀음이 지겨워져’, ‘지산의 일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해’ 자기 자신을 위해 죽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고 생각됐다. 아이히만은 악의

평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로 아이히만으로 인해 악과 평범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악에 대해서 책을 읽기 전에는 살인을 포함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책을 읽은 후에는 ‘무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위가 대량학살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줄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모를 수 있지? 변명 아닌가?’ 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자신의 행위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무관심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악의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범함에 대해 책을 읽기 전에는 사회의 공동합의에 따른 가치이고 가치가 곧 법으로 대변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책을 읽은 후 평범함이란 ‘양심’에 기반한 사회의 공동합의의 따른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법은 사회정립과 존속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법은 평범함을 대표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 한** : 악의 평범성에 대한 정의를 하고 가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악의 평범성의 특징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자’와 ‘평범하고 익숙할 정도로 많이 접해서 진부해진’ 이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악은 평범한 모습을 하고 우리들 곁에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악’과 ‘평범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책을 이해해보았다. 책을 읽으면서 놀라웠던 점은, 아이히만이 내가 생각한 그런 극악무도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긴 광신도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아이히만은 내 생각보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고, 실제 재판장에서도 6명의 진찰 결과, 정상이라고 판정되었고 심지어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진단받았다. 책에서 아이히만의 양심에 대해 말이 나와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아이히만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아이히만이 재판에서 죄책감을 갖지 않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히만이 유대인 학살의 끔찍한 장면들을 보고 그 일을 행하지 못했고, 실제로 그 행위들을 보지도 않았다는 구간에서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고, 그에 나는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은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제7장 반제회의 부분을 읽고 양심이 존재하다가 무너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중 피고 측에서 주장한 아이히만이 자신은 동료들처럼 무관심 같은 것으로 임무를 맞이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과 내면적 관계가 결핍된 다른 동료들과는 달랐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하면서, 다른 동료들은 그저 사무실 일벌레일 뿐이라고 말한 점에서 그럼 결국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는 건 본인은 명령만을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 아이히만의 욕구, 야망 같은 것이 아이히만의 행동에 대한 근원이었는데, 이는 평범함에 속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욕구와 야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이히만도 평범성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히만은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 윤리적인 인간의

의무와 권리를 버렸기 때문에 결국 속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를 통해서 평범성은 사람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의식에 기반된 행동들을 평범함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의 양심이나 죄책감 같은 추상적인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긍정적인 사회적인 약속, 믿음, 이타심 같은 추상적인 가치 같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평범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평범성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라고 정리해보았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무능성이 생각의 무능성,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의 무능성, 즉 사유의 불능성으로부터 그의 ‘악’이 실현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내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악’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고, 그 정도가 달라도 악의가 있어야만 행해진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책을 읽고 나니 악의 없는 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사유가 의무와 복종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무지성이 본인의 의지 없이 악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지위에 따라 점점 천박해지는 아이히만의 인격을 보고 ‘악’은 사실 권력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악의 기원은 권력에서 달려오는 권위와 이익에서 오는가 같은 생각도 들었다. 평범성을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는 악을 ‘윤리적인 인간의 도덕성을 저버리는 일’로 정리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큰 집단의 규칙에 무비판적으로 마비되어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을 때 악은 곧 ‘평범한 일상’이 된다는 것이 정말 무섭게 다가오는 책이었다. 먼저 책이 너무 어려웠다. 생각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아이히만의 전범 재판에 포함된 아이히만에 대한 상세기술이 많았고, 용어들이 어려운 것도 한 몫 했다. 특히 재판 부분 설명할 때는 연관되는 다른 판례들의 사건들도 나와서 집중해서 읽어야만 했다. 게다가 책의 내용에서 아이히만의 관점에서의 서술을 보여준 다음,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 너무 헷갈리는 구조였다. 다행히 역자 서문에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주고, 읽기 전에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본문을 읽으며 찾아야 하는 단어의 양이 줄어들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읽는 내내 재판 과정에서의 아이히만의 과장된 말투들이 거슬렸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아이히만에게 진절머리가 났고 왜 책의 초반에서 재판의 검사들이 그렇게 년덜머리를 낸 재판인지 작게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

[토의 후 느낀 점]

◆ 김** : 처음 주제를 정할 때 다들 악은 평범하지 않다고 이야기 했는데, 책을 통해서 각자의 의견이 모두 갈린 것도 놀라웠다. 이전 북클럽 활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는 게 강한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 활동은 전보다 의견에 대한 발언이 세고 많았기에 회의가 대략 2시간을 넘어갈 만큼 길어졌고, 또 의견 자체의 결이 이렇게 많이 갈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활동은 주제가 난이도가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매 북클럽을 할 때마다 느끼는 ‘같은 책을 읽어도 각자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중점이 다르고, 같은 토론주제에서도 의견이 다

다르다'를 재차 느꼈다.

난 책을 읽으면서 단락화된 사건이나 정리된 말에 집중을 해서 읽는 스타일인데, 이번 토의 주제는 전반적인 사람의 인생(재판)을 통해 토론 주제에 대해 정의해 봐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에 책의 내용도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친구들과 토론을 하고 나서 친구들이 책을 이해한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책에 대해 깊이 이해한 것이 느껴져서 다음 활동에 대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덕분에 책을 다시 한 번 읽는 기분도 들었다.

그리고 토론 주제에 대해서 다른 방향성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악과 평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우선 두 친구 모두 평범은 양심, 윤리적인 것 등 선함을 기반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내가 책을 읽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악은 선과 관련있어'하는 생각과는 달리 그 이유가 명확하고, 책을 통해 나와는 다른 결과 값을 얻은 게 놀라웠다. 또, 그를 통해서 나보다 '악'에 대해 냉정한 시각을 가졌음을 알게 됐다. 특히 평범은 '양심'인 것 같다는 친구의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에, 평범이 선과 악과 관련이 없다고 한 부분을 정말 확신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생각했고,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보면 '평범'은 곧 평소를 법을 어기지 않고, 선에 가까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기에 평범이 완전히 선과 악과 관련이 없다고 여길 수는 없다고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또 악에 대해서도 나와는 달리 친구들의 정리된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윤리적인 인간의 도덕성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이야기 한 친구의 의견이 나와 비슷해서 '악'에 대해서는 다들 비슷한 개념을 가졌다고 생각했고, 내가 고민했던 '악'의 개념에 대한 것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기준을 세울 수 있었다. 이어 회의가 끝나고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사적으로 하면서 '무사유(본인이 하는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지 않고 행하는 것)'를 한 아이히만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살아가면서 신념을 세우고, 쫓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알겠다'고 각자 이야기가 돼서, 이르지만 이번 북클럽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며 중요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 성** : 친구들과 악과 평범성에 대해, 악의 평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범함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다. 한 친구는 악을 '정확한 개념이 있는 것보다는 정도에 따라 나뉜다.'고 정의했고 한 친구는 악을 '사람들이 윤리적인 판단과 도덕성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평범성에 대해서 '평범성은 그저 어떤 그룹에 속하거나 모두 생각하는 것이 평범함이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의식에 기반된 행동들이 평범함이다.'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악의가 없어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 정말 크게 공감됐다.

각자 악과 평범함에 대해 정의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의 시작점과 평범함의 기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사회를 살아가는데 마주할 다양한 상황에서 평범함을 평범하게 지켜나

가기 위한 조금의 해결책을 얻은 것 같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시체의 복종을 경계하고 악의 행동을 요구받았을 때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상황에 무관심 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한** : 모두 아이히만이 생각보다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에 놀란 부분이 같아서 공감되었고, 지시가 없으면 어떠한 일을 못하는 유형이 있다는 것을 말한 친구의 말이 흥미로웠다. 또 평범은 선과 악과는 관련이 없는 어떤 것으로 평범성은 어떠한 그룹에서 중간에 속하거나, 그런 것일 뿐, 변화를 하고 어떤 공통된 분위기가 평범이라는 의견을 듣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라서 주의 깊게 들었던 것 같다.

나도 비슷한 윤리적인 잣대를 평범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평범성이 언급될 때 양심이 같이 언급되기에 양심이 평범성을 대변해 줄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게 되었다. 아이히만에 대한 의견도 세 명 다 달라서 정말 신기했다. 평범한 사람으로 보는 의견도, 그 중간의 의견도, 전혀 평범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완전히 다른 의견 양상을 보여서, 다른 의견들을 듣고 그 이유에 듣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었다. 서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의견들이 많아 다양하게 이야기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생각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고의 범위를 넓힌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2021 년 10 월 29 일

참가자대표 : 한**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고삼차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11월 05일(금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7	이름	김**	학번	2017	이름	성**
	학번	2017	이름	한**	학번		이름	
<p>[활동 내용]</p> <p>도서 「세상에 발자취를 남긴 생각의 천재들 4장」을 읽고, 책에 대한 감상문을 공유하고 악의 주제들이 평범한가에 대한 토의를 나누는 후, 한나 아렌트가 주장하는 '악의 평범성'과 '악의 평범성의 반론'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와 함께 책을 읽은 각자의 감상문을 발표하고,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며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마인드맵]</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2015 북클럽 2회 마인드맵</p> </div>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토의 내용]

◆ 김** : 이전의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으니까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악의 평범성'이 재차 이해가 됐고, 그녀가 아이히만의 편에서도, 유대인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정말 객관적이었다는 부분은 공감한다. 가장 한나 아렌트의 의견에 공감했던 부분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군에게 무차별 폭격을 행할 때 유대인이 팝콘과 콜라를 마시면서 구경하고 즐거워한 것은 독일인들이 유대인에게 행한 것과 다름이 없는 행위'라고 한 점이다. 그저 본인들의 입장에서 이득인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오히려 구경하고 즐거워 한 것까지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봤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서 '아이히만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에도 적극 동의했다.

그런 내용에서 나는 그런 '악'을 저지르는 악의 주체들이 그저 아이히만이나 유대인에 한하지 않고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한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다. (물론 아래에서 말할 예시들은 모두 권력에 의한 행위가 아니기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하지만, 권력으로 인한 강압적인 지시가 없이도 저지른 행위들이 부정적인 행위를 하게 만드는 권력이 가압된다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운전을 예로 하면, 제한 속도가 50인 도로에서 70으로 달리는 것이나, 길에 있는 동물들과 노숙자들을 그대로 두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나, 어찌면 왕따나 업무 부조리 등의 나를 향하지 않은 주변에서 발생한 악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나가는 등의 일들이다. 나는 악은 '나의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를 저지르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서 판단할 수 있고, 평범함은 '그저 어떠한 그룹에서 중간에 속하거나 모두 동일(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평범일 뿐, 선하거나 악한 기준이 없으며, 그룹과 시기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나의 기준에서 운전자들에게 제한 속도가 50인 도로에서 70으로 달리는 것은 본인의 이득을 위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긴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지만, '운전자들에게는 평범'이다. 우리는 약한 사람이나 동물을 보호하고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무시한 악을 행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서울에서 처음 노숙자를 봤을 때는 노숙자가 불쌍하고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냥 지나가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상하게 보일까 봐 무시했고, 서울 생활을 하는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노숙자를 보고 오히려 더럽고 냄새난다고 생각한 적은 많아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졌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약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도덕'에 반하는 행위를 했고 이후에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나의 기준의 악에 속하고, 그 거리에서 나는 평범했다. 왕따나 업무 부조리 등에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26900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방관자는 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다. 위처럼 개인적 경험 상 고1 때 같은 반에 은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었고, 도와주려고 말을 걸고 같이 다니려고 한 순간 나도 같이 무리에서 배척이 됐고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 피해자인 나의 기준에서 악이었고 평범하지 않았지만, 그

반에서 그들 모두는 평범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악을 저지르고 살고, 악은 어떠한 상황 속에 순응한 평범한 사람들로서 이루어진다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옳다고 생각이 든다.

다만, 모두 다른 정도의 악을 행한 사람이 모두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정의내리는 것은 이르다. 길을 가다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사람을 죽인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지를 옳지 않은 일'이라는 악의 정의에 따르면 같은 악이지만, 정말 두 사례를 완전히 같은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을 완전히 같은 인간성을 가졌다고 보고, 둘 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그들은 같은 사회에서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또 잘못된 일반화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반론의 이야기로, 아이히만은 본인의 행위나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유대인 학살을 저질렀다. 그렇지만 그는 정말 그 사정을 몰랐는가? 그는 '처음'에만 몰랐다. '반제회의'부터 그는 그저 '살인자들만이 모인 잔혹한 회의' 속에서 그는 그저 일을 한 것이라고 합리화한 것이고, 그는 실제 '살인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는 평범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 속을 벗어나 더 큰 사회로 돌아왔을 때 평범하지 않음을 본능적으로 느꼈기에 '평범하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부분에서 '아이히만을 포함한 그들 모두가 평범하지 않다'는 악의 평범성의 반론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또한 한나 아렌트는 그가 가정에서는 따듯하고 평범한 아버지이나 남편이라며 그것이 악의 평범성의 사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히만에게서 '유대인 학살자'라는 말만 빼놓고 그 사람을 칭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따지면 사이코패스였던 유영철에게 '살인자'라는 말을 빼놓으면 아들에게는 '따듯한 아버지'였고, 조두순도 '아동성범죄자'라는 말을 빼놓고 가정에서만 보면 '자상한 남편'이지 않은가? 어떠한 악의 주체에게서 악의 행위를 빼놓고 본다면, 누가 악의 주체로서 보여질까? '누군가를 죽이고, 인간적으로도 보지 않은 행위'를 그를 저지른 사람의 인생에서 빼고 볼 수 있는 단순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악의 평범함과 악의 평범함에 대한 반론 모두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래서 나는 그 두 가지의 생각을 합하여 '악의 주체는 평범한가'라는 토론 내용을 생각했을 때 사회에서 평범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은 그저 '악을 저질렀는가, 아닌가'만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악의 주체'가 저지른 행위나 생각의 정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악의 주체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만났을 때 '사회 기준의 평범'에 속하는 것은 이 책만으로 세분화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한 악(많은 사람들이 행한 악/욕설, 무시 등)'인지, '얼마나 잔혹했는지' 등이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기준에서 최대치로 평범의 기준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어떠한 생명력을 가진 무언가에 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죽음까지 이루도록 하는 것을 알고도 저지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가 행한 악의 행위를 빼놓고 그 사람을 정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에 '아이히만'이나 '유대인' 등은 모두가 살인자였던 나치군, 그들 사이에서는 평범하지만, '현대 사회의 우리 사이에서는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정**** : ‘악의 평범함’과 ‘악의 평범함에 반론’에 대해 집중하며 읽으면서 ‘악의 주체들을 평범한 인간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인 아이히만의 행동에 대해 ‘아이히만의 본질이 사악한 인간이었다면 주의 사람들에게도 악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하며 유대인 대학살 같은 악행은 ‘극 소수의 악당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건이 맞으면 저질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여전히 유대인 대학살의 실무책임자인 아이히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유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평소 존경하던 히틀러와 국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했다.’는 즉,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의견에 더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악을 행한 사람은 전쟁 중에도, 전쟁이 끝난 후에도 평범함을 동경하고 평범한 인간을 연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쟁 중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살인 공장이 아닌 노동 수용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나무를 심과 화분을 놓아 깔끔히 꾸미고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팻말을 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1942년 대량학살을 계획하는 반제회의에서 대량학살이나 멸절이라는 단어 대신 ‘최종해결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마쳤다. 전쟁 후에는 전범자들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아르헨티나로 망명 신청을 했으며 모사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 수술을 하고 잡힐 것에 대비해서 청산가리 알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세상에 톱니바퀴처럼 사는 것이 평범함이라고 착각하는 악한 인간들일 수 있다.

한나 아렌트에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필란드인에게 미사일을 쏘고 언덕에 올라가 팝콘과 콜라를 들고 사람들이 죽어나는걸 구경한 유대인들은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걸까? 고의든 타의든 생명에 죽음에 관여한 사람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악의 주체들은 평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악에는 주체성이 살아있다. 악을 무관심으로만 봤는데 더 구체적으로 ‘상대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악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 **한**** : 이번 책을 통해서 저번 책을 읽으면서 내내 궁금했던, 왜 하필 유대인이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다. 히틀러가 원하던 전체주의에서는 폭민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층민들을 이용해서 독재 정권을 수립할 수 있었고, 지지자들의 분노를 쏟을 수 있게 지정한 타깃 유대인이라는 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좋았다. 그저 불만을 표출할 대상으로 지정되어 그 많은 학살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허망하기만 했다. 이전 책에서는 알 수 없었던 사실들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민족을 파괴하는데 일조한 부유한 유대인 말고도, 같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왕처럼 군림하며 나치의 편에 선 ‘카포’라는 그룹이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충격을 주었다. 대단한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니고 같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처지에서 같은 유대인들을 폭행하

는 일에 앞장을 선 사람들이 이해 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한나 아렌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유대인 탄압을 받고, 수용소에 갇히기까지 했으면서도 탈출해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된 전체주의에 대해 연구한 것이 너무나 대단하게만 느껴졌다. 겪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책의 글로만 접하는 나도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직접 겪고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전체주의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고 끝내 책으로 출판해 모든 것을 고발한 모습이 정말 고고하게 보였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현대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런 학살을 겪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팔레스타인사람들에게 나치와 다를 것 없는 행위들을 반복하며 대학살의 끔찍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악의 주체들은 평범한가? 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수도 없이 거짓말은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행동한 행위들이 모두 징집되거나, 누군가가 시켜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다.

아이히만은 외판원으로 사는 것보다 더 높은 직위를 원했고, 그걸 계기로 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군에서도 지켜온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높은 직위를 위해 친위대에 들어갔다. 아주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반제회의에 서기로 참석한 아이히만은 반제회의에 강제되어 동원되거나, 누군가의 지시로 참석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히만에게 반제회의는 그저 개인적 접촉을 강화하고, 연줄을 댈 수 있는 기회였을 뿐이었고, 때문에 성공을 위해 서기로 참석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 이 행위는 평범한 야망과 욕심에 의해 행해진 것이지만, 이는 큰 피해를 낳았기에 절대 평범성을 지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본 이유가, 그가 유대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이히만과 나치 잔당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갖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대학살은 확실히 정부가 주도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까지는 이해해 볼 수 있었지만,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구는 그 태도가 이해할 수 없었다. 학살만 제외하면 전혀 폭력적이지 않고 다정한 사람이었다는 부분에서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로 이미 폭력성이 충분히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다정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악한 행동을 저지르기 전의 평판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일컬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의 범죄자들의 주변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평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살인자에 대한 변명거리를 손에 쥐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 결국 집단의 이념이 개인의 이념을 잡아먹은 상태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혹은 사회나 집단에 의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의 평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악의 주체들은 평범하다' 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악의 평범성은 결국 악의 주체들의 변명거리로 밖에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토의 후 느낀 점]

◆ 김** : 내가 토론 주제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할 때는 나도 꽤나 악의 평범성에 반론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셋 중에서 전혀 그렇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토론 전부터 셋 모두 책을 읽고 '악의 평범성이 머리로 이해되지만,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는데 각자의 의견을 들으니 그 말에 대해서 더욱 공감하게 됐다.

우선 한 친구가 '악은 주체성이 살아있다'고 말한 부분이 소름 돋을 정도로 아이히만과 유대인들의 행위를 저격하는 것 같아서 감탄했고, 평범을 꾸미는 것을 나는 아이히만에만 접목해서 봤는데, 노동 수용소 자체도 그러한 부분에 속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아서 놀라웠다. 그리고 한 친구는 '그들은 세상에 톱니바퀴처럼 사는 것이 평범함이라고 착각하는 악한 인간들일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악의 주체들의 변명거리로 여겨진다.'고 한 부분에서 결국 '악의 주체들은 그를 착각하거나,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라고 느껴졌고, 적극 동의했다. 내가 악의 주체를 시간이나 사건과 관련 없이 생각한 것에 비해, 멤버들은 아이히만과 그 당시의 사건에 맞췄기 때문에 나보다 더 냉정할 수 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부가적으로 내가 이전에 '무사유'도 악을 나누는 고정 개념이라기보다는 '무사유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중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재차 생각했다. 또 평범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그렇게 느낀 이유를 찾은 방법은 다르지만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같았다는 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 감상에 확신을 하게 했다.

◆ 성** : 악의 주체가 평범한가 평범하지 않은가에 대해 친구들과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악의 평범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악의 평범성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생겼다. 단지 악의 정도에 따라 평범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친구의 생각을 들으면서 악의 정도에 따라 평범성이 결정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뜻깊었다. 그리고 모순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야기지만 '악의 평범성은 존재할 수 있지만 악의 주체는 평범하지 않다.'는 친구의 생각 또한 매우 공감됐다. 많은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악에 대해 '상대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었다.

◆ 한** : 임원들 사이에서 대체어 사용,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일반 수용소처럼 보이게 하려는 점들 등의 행위들이 평범성을 동경하고 연기하기 위해 끊임없이 세뇌하는 작업을 전쟁 전부터 전쟁 후까지 노력한 것 같다는 의견을 듣고, 다시 그 대목을 읽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고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어야겠다고 생각 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해 저지른 일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유대인들이 그 악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악은 주체성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이고, 악을 경험한 이들이 악을 답습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했다는 점에서 큰 고민을 하게 되었다. 토의한 결과 왕따 같은 문제에서도 그렇고 악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행위들을 답습하

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혼자 고민하던 부분을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의견이 모이니 후련한 기분이 들었다. 한 친구가 악의 주체의 범위를 넓게 보고 제시한 의견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악의 주체들을 저렇게 넓게 볼 수도 있구나 싶었고, 만약에 저 범위에서 악의 주체를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나 역시 '악'에 대해 정의를 제대로 못 할 것만 같아서 인상 깊었다. 이전에 했던 활동만큼 '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재미있게 토론할 수 있었다.

2021년 11 월 05 일

참가자대표 : 한**

북클럽 운영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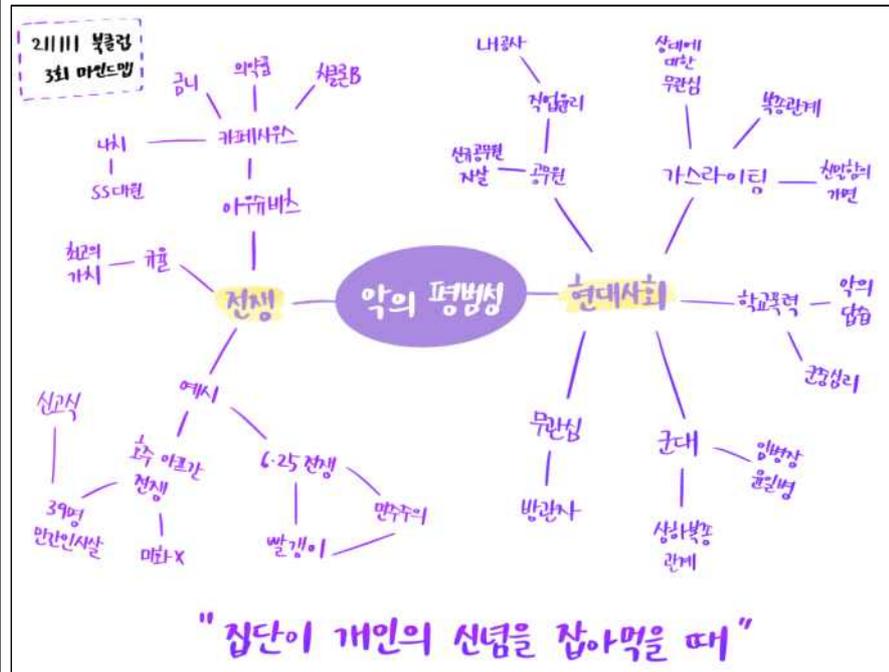
북클럽 팀명	고삼차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11월 11일(목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7	이름	김**	학번	2017	이름	성**
	학번	2017	이름	한**	학번		이름	

[활동 내용]

도서 「나는 아우슈비츠의 약사입니다」를 읽고, 전쟁 시에 자행된 ‘악의 평범성’과 현대 사회 내에서 권력의 상하구조 안에서 이루어진 ‘악의 평범성’의 사례를 비교하고 토의해보면서, ‘악의 평범성’이 어떻게 변화해 현대 사회에 적용이 되었는지 토의했습니다. 책을 읽은 각자의 감상문을 공유하고,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며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인드맵]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토의 내용]

◆ 김** :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다양한 의문이 머릿속을 채웠고, 어떠한 철학적 사실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실(기록)을 설명하는 다소 쉬운 책인데도 ‘내가 잘 읽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해가 어려울 만큼 잔혹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

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혹해질 수 있는지, 아우슈비츠에 간 사람들 중 90%는 바로 가스실로 데려가 죽었다고 하는데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일방적인 학살이 자행된 것이 고작 100년도 안 된 (아우슈비츠: 1942~1944년에 시행됨) 근대 혹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한 일이 맞는지, 그러한 부당하고 잔혹한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고, 생각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책을 읽는 동안 ‘가스실’, ‘금니’, ‘구덩이’, ‘시체를 태우는 냄새’라는 잔인한 단어들과 ‘오페라’, ‘파티’, ‘6살의 아이’, ‘하늘색 화분’과 같은 평범한 단어들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혹은 같은 시기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렇게 잔혹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오페라’를 보러 가고, ‘악국을 개업’하는 등 일상을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지,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을 그를 그저 ‘지시에 따른 일반적인 공무원’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의 평범에도 허용된다고 본 것인지 궁금했다. 또한 재판 부분에서 카페시우스가 일관적인 주장을 하니까 책을 읽으면서도 헛갈릴 정도로 황당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재차 확신한 것은 그는 악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나는 그저 지시를 따랐을 뿐 당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이해한다. 하지만 어떠한 그룹에서 모두가 악을 저질러서 그 무리에서 평범한 사람이 됐다면, 그것이 사회에 나와서도 평범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그룹의 평범이 있듯, 사회의 평범이 있고 그 사회의 평범에서는 카페시우스는 그저 ‘전쟁 상황을 이용해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한 사람’일 뿐이다. 설사 그가 그 무리에서 평범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악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악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다. 즉, 그 세계 속의 평범이 그의 악(죄)를 용서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심지어 그는 그런 행위에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양심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합리화했다. 그냥 책을 읽는 내내 카페시우스에 너무 화가 났고, 어쩌면 아이히만보다 더 악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또 개인적으로 이전에 읽었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온 ‘유대인을 총살하고 우울증에 걸린 독일군’들의 사례를 생각하면서 과연 카페시우스가 그 사이에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여겨졌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상부에서 ‘학살’이라는 단어가 아닌 ‘최종적 해결’이라는 단어를 통해 군인들의 죄책감까지 생각한 것을 보면 위 사례처럼 죄책감을 느낀 독일군인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카페시우스는 그 학살의 현장에서도 그런 기미가 없던 것을 봤을 때 그 사이에서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쟁 시에 자행된 악의 평범성은 ‘살인’ 혹은 ‘강제적인 노동’ 그리고 ‘폭력’, ‘강간’ 등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 이해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 대다수이며, 그 외에도 ‘폭언’, ‘무시’ 등의 현대의 악의 평범성이 포함된 가장 넓은 형태의 악의 평범성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가 악을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지배자)를 위한’으로 생각하면서 ‘악’이 아니라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 속에서 ‘악’이 가장 사회적이고 공공연하게 평범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우슈비츠의 약사입니다’에서 볼 수 있던 아우슈비츠 내에서 나치들이 유대인을 향한 그 모든 행위가 악의 평범성의 사례이며, 독일인의 대부분이 히틀러를 지지했다는 점에서도 전쟁 상황에서는 ‘악의 평

범성'이 가장 공공연해진다고 생각했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악의 평범성의 사례들은 전쟁시의 악의 평범성보다 권력 관계가 확실치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확실하고, 전쟁 시보다 권력관계에 의한 지시가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분위기를 따르지 않을 때 그 무리에서 배척되는 부분이 그룹을 형성하는 다인원의 공통된 악의 행위로서 발생된다. 지시에 따라서가 아니라 군중심리가 곧 권력이 되는 것이다. 어쩌면 '평범'이 '권력'의 수단으로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한 달 전 발생한 대전시청의 신규 공무원이 과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가 자살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직장이라는 권력관계가 확실한 곳에서 한 부서의 상위 직급인 '과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다른 직원들이 함께 거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옳은 말을 한 '신규 공무원'을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면서 '왕따'를 시킨 악의 행위가 예시로서 생각났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권력관계에 의한 악의 평범성의 사례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작은 사회'라고 불리는 '학교 내의 악의 평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는 뜻으로, '권력관계'란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서 성립하는 지배와 복종의 사회관계라고 명시된다. 그러한 정확한 사전적 정의에서 '선생->학생'과 '학생->학생'도 엄연한 악의 평범성의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가해->피해)

학교 내에서 학생 사이에서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냐고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은 미성년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고, 또 매일 같은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고정된 환경이 생성돼 각자의 행동에 따라 같은 나이의 학생이더라도 그들만의 미묘한 관계성이 성립된다. 그 사이에서 지배와 복종의 사회관계가 충분히 생성되는 사례가 많았기에 권력관계에 '그러한 미묘한 관계'도 포함된다고 생각했다.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인 사촌 동생들로부터 "정확한 판단기준은 모르지만 학생 외모나 성격, 동아리 등으로 그에 대해 많이 갈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학교 폭력이나 학생 실태에 대한 기사에서 아파트, 부모의 직업, 경제적 요건 등에 의해 권력 관계가 분립된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도 악의 평범성의 사례로 적합하다. 특히 학교폭력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한다.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26900명', 가해자는 '9300'명으로 가해 이유에 '선배나 친구가 시켜서'가 '2.9%'로 '320명', '다른 친구가 하니 까'가 10.1%로 '920명'로 응답했다. 특히 가해 방법에서 단독이 '45%', 집단이 '55%'로 집단이 개인으로 저지른 학교폭력보다 약 10%로 높았다. 이러한 전쟁과 현대사회의 '악의 평범성'을 비교하면, 전쟁은 현대사회보다 악의 평범성이 국가 혹은 사회에서 더 광범위하고 당연시하게 발생할 환경이 이루어지고, '살인', '폭력' 등 보다 잔혹한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시', '명령'에 대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악의 평범성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본인'을 위한다는 것이 아닌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이 '평범한 사람'이 더 잔혹한 행위를 하도록 만든다.

반면 현대사회에서는 악의 평범성이 광범위하지 않고, 오로지 어떠한 그룹, 조직에서 소분화해서 이루어지며, '폭력', '폭언' 등 보다 은밀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형태가 많다. 또한 누군가의 직접적인 명령이 아닌,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미묘한 분위기나 관계성으로서 발생하며, 어쩌면 군중심리가 곧 권력으로서 여겨진다. 또한 오로지 '본인'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둘 다 '무사유'로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같으며, 역시나 '그들의 악을 평범하다 생각하고 저지른 그 속에서나 평범한 사람으로 존재'할 뿐, 그 시대나 그 그룹 내에서 '같은 행위를 한 악의 주체들 사이에서나 평범'한 것이지 도덕적 이상을 평범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평범에서는 악한 것은 물론 평범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 성** : 아우슈비츠가 설립된 목적과 과정들을 읽으면서 공간 차체가 잔혹한 악을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 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책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 주임약사였던 '카페시우스'에 집중해 책을 읽어 나갔다. 카페시우스는 1946년 5월25일, 1947년8월2일 두 번의 석방, 1947년 10월 9일 한 번의 무죄판결, 1965년 5월7일 한 번의 유죄판결로 아우슈비츠의 주임약사생활을 정당화했다. 1965년 5월7일, 유죄판결 또한 수많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가벼운 9년형을 받았지만 수감생활 마저도 2년 반을 채 채우지 않고 독일의 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 석방 당했다.

카페시우스는 사적인 감정보다 일이 우선적인 사람이었고 아우슈비츠가 포로수용소이자 강제노동자 수용소이자 죽음의수용소로서 복합적인 기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수용소와는 다르다는 사실 알고 있었다. 아우슈비츠에 근무당시 주임약사로 승진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1965년 5월7일 최종변론 "아우슈비츠의 주임약사가 된 것은 오직 불운한 환경 탓이다."라고 언급한다.

그에게 수감자는 인간이 아닌 전멸의 대상인 소모품에 불과했다. 때문에 신입수감자중에 누굴 살리고 누굴 죽일 건지 선별하는 과정을 참여했다. 수감자들에게 줄 약을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았다. 카페시우스가 처음에 선별작업을 꺼렸던 이유는 도덕적양심이 아니라 책임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마지막 재판에서 "어렸을 때부터 독일이 법치주의 표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눈에는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나는 일이 합법적이라 여겼다.", 석방당시 "규율이 최고의 가치였어 그게 전쟁이야, 아우슈비츠의방식과 재판은모든 것이 달랐다."는 말을 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평범한 인간임을 정당화 했다. 생각없이 일만 하는 깡통을 진정 평범함을 가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카페시우스는 끊임없이 전쟁이라는 환경을 탓하며 전쟁이 자신의 평범함을 앗아 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환경 속에서 억압되어 자신의 악이 표출됐고 그 시대에 나의 악이 평범했다고 주장하기에 아우슈비츠는 너무 무관심하고 자발적하게 사람을 죽이고 시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챙기려 했다. 카페시우스는 전쟁 상황에서도 인간성 상실의 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악의 평범성은 존재한다. 상하관계가 복종 관계로 전환되는 순간 악은 평범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악한 행동에 대해 정당하다고 합리화 되는 것 같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통해 악에 평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가스라이팅은 최근에 많이 사용된 단어로 가정, 학교, 연인, 군대, 직장 등 주

로 밀접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비대칭적 권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할 때 가스라이팅이 이뤄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친밀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의 악행이 평범하고 널 위한 것 이라고 소리치는 것에 불과하다.

현대와 전쟁상황의 악의 평범성은 상황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현대와 전쟁상황(특수상황)에 악의 평범성 모두 상대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뿌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나의 무관심, 우리의 무관심, 모두의 무관심이 많은 악을 수용하게 만들고 사회에서 악을 평범하게 만들고 있다.

◆ 한** : 이전의 두 책과는 달리 아우슈비츠의 건설사부터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아우슈비츠가 공단으로 조성되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이었다. 강제수용소를 설립한 것도 공단 이익 단지가 우선이고, 그에 필요한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수단인 것도 처음 알았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첫 장부터 초면인 정보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정말 무지함을 느끼며 창피하게 느껴졌고, 이 책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너무 다행스러웠다. 나치와 파르벤, 강제수용소 관리인들 모두 어떻게든 유대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는 그 마음가짐들이 소름끼칠 정도였다. 그 많은 사람들을 태워 죽인 것이 아닌 소모품을 태워 없앤 것이라고 생각했을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구심도 들었다. 금니를 발치하고, 머리카락마저 수거해서 매트릭스를 채웠다는 부분에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 값이 매트릭스보다 못한 것만 같아 너무 서글프게 느껴졌다. 이런 행위들을 벌인 나치의 고위 간부들과 파르벤의 임원들이 강경한 동물 권리 운동가들이었고, 히틀러는 채식주의자라는 부분에서 오로지 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그 부분 때문에 더욱 소름이 돋았다.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어느 부분에서는 그 분야의 운동가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면모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우슈비츠에서 독가스로 대량 사살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수많은 임상실험이라 부르기도 처참한 것들이 행해졌는지 전혀 몰랐다. 임상실험이라는 말로 포장된 가학심에 의한 대량학살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 두 번의 활동으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악의 주체들의 변명으로 쓰이는 것만 같아 짝찝했는데, 책의 초반에 나왔던 '학살을 자행하던 독일군들이 정신적 휴유증을 앓아 더 이상의 작업이 불가능했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정부가 시켜서 한 것이므로 이 사람들이 악의 평범성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도덕과 비윤리가 강요되는 시기에도 윤리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악의 평범성이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사례들 중에서, 아우슈비츠처럼 전쟁 시 '악의 평범성'과 가장 비슷하다고 느낀 사례는 호주 특수부대가 아프간 전쟁 중에 민간인을 포함해 39명을 살해했다는 조사 결과였다. 부 경험 많고 영향력 있는 부사관들과 이들의 후배들이 군사 우수성, 엘리트주의, 특권을 왜곡해 부대 문화

를 형성하고 증폭시킨 점과 신입 대원이 이른바 '신고식(blooding)' 관행에 따라 상급자의 강요로 포로를 살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에서, 규모는 다르지만 나치 전범의 악의 평범성과 가장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호주 국방부 참모총장이 "살인 혐의를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일어난 일로 미화할 순 없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악의 평범성이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다수 현대사회의 권력의 상하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악의 평범성'의 대표적인 예는 군대라고 생각한다. 군대만큼 집단에 소속되어 속되게 말하는 '까라면 까'라는 식이 가장 잘 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대 관련 따돌림이나 선임들의 괴롭힘으로 자살한 사례들도 뉴스 보도에 수차례 나왔고, 괴롭히던 선임에 대한 복수로 인한 살인극도 뉴스에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 문제도 악의 평범성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봤는데, 결국 학급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친구들은 권력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학급내의 집단 따돌림도 현대사회의 악의 평범성의 예시라고 생각한다. 이는 방관자들이 주로 많은 사건이지만, 권력을 가진 친구들이 방관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사례를 찾고 생각해보니 정말 악과 무관심이 떼어낼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악의 평범성은 한나 아렌트가 전쟁 시 일어난 비정상 국가들의 만행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이지만, 악의 평범성은 더이상 국가적 차원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에서도 집단이 개인의 신념을 잡아먹어 선과 악을 구분하기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시의 악의 평범성과 현대에서의 악의 평범성은 같은 듯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데, 전체적인 규모가 다르고, 그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현대에서 보여지는 악의 평범성들은 대체로 규모가 사회에서 행해지는 것보다는 어떤 집단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그만큼 그 방식이 정교하고 은밀한 행위들로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현대사회의 악의 평범성들은 표면에 드러나는 일들이 적기 때문에 전쟁 시 같은 극한의 상황이 아님에도 보다 쉽게 물들고, 쉽게 돌아오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토의 후 느낀 점]

◆ 김** : 다들 생각한 내용이 비슷한 토론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책에서 나타난 악의 행위들이 잔혹했고, 그는 일반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무관심이 악을 만들어간다는 것에 공감했는데, 나도 살아가면서 '오페라를 보러 간 카페시우스에게 박수를 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군대(내부적인 폭력문제)의 현대사회 문제에서 공감을 했는데, '임병장, 윤일병' 사건 만큼 현대사회의 악의 평범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없기 때문이다. 또 '악의 평범성'을 '집단이 개인의 신념을 잡아먹는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 공감갔고 그러한 사례는 현대사회에서도 많

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어서 '복종관계'로부터 악의 평범성이 시작된다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지 않았는데, 친구의 설명을 들으니 점차 이해가 됐고, '상하관계'와 '복종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한 차례 이해할 수 있었다.

◆ **성**** : 악의 평범함이라는 개념이 나온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외에, 현대사회에서도 악의 평범성이 존재 할까? 에 대한 물음을 기반으로 현대사회에서 이뤄진 악의 평범성의 사례를 비교하며 토의를 진행했다.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일어난 악의 평범성과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악의 평범성은 같은 양상을 보이는지,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또한 같이 고민해 보았다. 현대 사회에 악의 평범성은 '학교 폭력', '군대', '가스라이팅'이라는 상황, 집단, 단어를 예시로 접근해 봤다. 특히 학교폭력에서 악의 평범성은 친구들 모두 학창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주제였다. 토의를 진행할수록 전쟁이라는 특수상황과 현대사회의 악의 평범성의 양상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 권력구조에서 복종관계를 강요하면서부터 악의 평범성이 자행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 **한**** : 전쟁시 극한의 상황에서의 잔인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현대 사회의 악의 평범성 사례를 찾아온 것들이 공통된 것도 있고, 흥미로운 것도 있었다. 학교 폭력에 대해 사촌동생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해온 친구 덕분에,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학교폭력을 사례로 가져올 때 '이것도 포함 되는 걸까?' 라는 고민을 했다고 밝혔는데, 나도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친구의 '전쟁에서 악의 평범성의 상하관계가 복종관계로 전락되는 순간 악은 평범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합리화되고 있다' 라는 말이 정말 인상깊었다. 전쟁 시의 악의 평범성을 정확히 짚었고,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큰 범위의 악의 평범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례로 가져온 가스라이팅도 '아!' 하게 만드는 사례였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고, 접하기도 많이 접했지만 악의 평범성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친구의 의견을 들어보니 현대사회에서 가장 응용된 악의 평범성 사례라고 생각했다. 악의 평범성은 모두의 무관심이 악을 수용하게 만들고 평범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에 많이 공감할 수 있었고, 나 자신에게 있는 무관심한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2021년 11 월 11 일

참가자대표 : 한**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고삼차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11월 17일(수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7	이름	김**	학번	2017	이름	성**
	학번	2017	이름	한**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활동 내용]</p> <p>도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을 읽고 환경에서의 악의 평범성처럼 거대한 다수가 이루어내고 있어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악의 평범성에 대한 사례를 찾고 악의 평범성의 범위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그와 함께 책을 읽은 각자의 감상문을 발표하고,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며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마인드맵]</p>							

[토의 내용]

◆ 김** :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을 읽고 1주차 때부터 고민하던 악의 정의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주차 때 내가 악에 가장 근접한 정의는 ‘본인의 이득이나 이익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행위’+ ‘무사유’이라고 생각지만, 도축장이나 도살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의 사례를 생각하며 그것이 과연 진정한 악일까? ‘무사유’만이 악의 정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 그리고 이번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정의한 두 내용(‘본인의 이득이나 이익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행위’ 그리고 ‘무사유’로서 행한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이 악의 정의이며, 내가 생각한 도축장과 도살장은 그저 내가 그 거대한 ‘악의 평범성’에 속해있기에 확신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번 책을 읽으면서 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환경을 위한 것들’이 사실은 환경종말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즉 ‘잘못된 지식’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드리고 행한 ‘무사유’. 그것이 내가 도축장이나 도살장을 악으로서 받아드리지 못한 이유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악의 평범에 속해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했지만, 이번 책을 읽으면서 ‘악의 평범성’이 생각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당연하게 받아 들여져왔는지를 알게 돼서 충격적이었다. 또 평범성은 이전에 말했던 그저 어떠한 그룹에서 중간에 속하거나 모두 생각하는 것이 평범일 뿐 선하거나 악한 기준이 없으며, 그룹적 혹은 사회적 혹은 국가적으로 형성돼있는 그룹과 시기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그저 그곳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어떠한 개념’이라는 의견이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우선 내가 생각한 ‘악의 평범성’은 인간이 성장해가면서 배운 ‘악함’을 ‘변한 사회 환경’에 맞춰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나치군이 전쟁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악함을 배우고서 ‘제 2차 대전’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인을 행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번 책의 브라질과 원주민 파트를 읽으면서 ‘악’이 ‘악’인지 모르고 행하는 것은 ‘순수선’으로부터도 행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고, 전쟁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악의 평범성’의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환경주의자들이 브라질의 농부나 원주민들에게 나무를 베거나, 그들의 거주지에서 거주하지 말라거나,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은 환경을 위한다는 ‘선’에서 나온 생각일 것이다. 왜냐하면 책에 따르면 그러한 모든 행위는 ‘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있지만, 환경 단체나 어떤 환경주의자들을 제외하고 환경을 위한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를 행한 것은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나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그들이 하는 투쟁이 정말 ‘환경을 위하는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한 과정에서 진짜 ‘환경을 위하는 선’만이 존재했나? 아니다.

도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에 따르면, 그들이 하는 행위는 실제 ‘환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별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농부나 원주민들이 그것을 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해 줘야한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환경'을 위한다는 생각만으로 그들(브라질인이나 원주민)의 생존방식은 논외로 치고 무시했다. 그는 후진국에서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농부나 원주민 등을 '선'을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집에서 당연하게 살아가는 권리를 해치려고 한 것이다. 그는 엄연히 본인의 행위와 그들의 사정을 생각지 않은 무사유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기준에서 악이다. 신재생 에너지가 두루미와 독수리, 박쥐 등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없애는 것에 반해 우린 신재생 에너지가 환경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설사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갈리더라도, 결국 악의 평범성을 이룰 수 있는 '무사유'가 현대 사회에서 전 세계에 도달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사유'로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 또한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브라질의 우림이 '지구의 허파'이며, 그를 지키기 위해서 브라질 사람들이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구의 허파라 생각하던 브라질 열대우림을 지키는 방법이 그들의 거주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임에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 정확하다. 나 역시 환경 진보주의자들과 다름없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 어찌면 내가 처음에 악과 평범은 다르다고 생각한 것은, 즉 도덕적 평범을 이야기할 수 있던 것은 전쟁이 없는 시기에 운이 좋게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책의 마지막 장 '힘있는 자들이 가장 좋은 해결책에 반대한다'라는 주제처럼 나도 '농사가 아닌 개발을 선택해 현재 환경보호를 해야 하는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성장해나갔는데, 이제 와서 본인들의 이득(이득)을 성취하기 위해서 후진국들의 기술적 발전을 막는 것이 선진국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경을 위해 이루어져야한다고 전세계이 선진국들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악의 평범성'에 완벽히 속한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생각 속에서 나는 이전 도서들과 접목되면서 항상 가해자는 부자나 정치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낙태'가 그러한 거대한 다수가 이루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생각했다. "낙태"가 악이다, 선이다"를 나누는 것은 오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할 것이기에, 내가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정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낙태라는 행위는 '엄마를 지키냐', '태아를 지키냐'의 관점에 따라 둘 중 하나는 서로의 입장에 의해 둘 모두 잘못된 것으로서 여겨질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변해왔는가. 불과 3년 전만 해도 '낙태'는 사회의 커다란 분위기 속에서는 '악'으로 존재했다. '태아는 생명'임으로 그것을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없애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 분위기는 현재는 완전 변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얼마 전 '낙태'관련 논란에 휘말린 배우 '김선호'의 사례를 보면 그를 현저히 느낄 수 있는데, 이전의 분위기였다면 광고 복귀는커녕 연예계에서 일명 '몰락'했다고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많은 응원과 환영을 받으며 복귀했고 관련 기사나 sns의 댓글을 보면 낙태에 대수롭지 않은 분위기이다. 즉, 현재는 낙태가 '임산부의 결정권을 전혀 고려치 않은 반인

권적인 일'라는 분위기가 더욱 확연하다. 또 생각이 변한 것은 '헌법'의 변화로도 볼 수 있다. '낙태죄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2012년의 헌법재판 결과에 반해서, 2020년에 새로 열린 헌법재판에서는 '헌법 불합치'이긴 하나 '낙태죄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헌법의 5가지 기본 조건 중 '사회 분위기'가 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나는 판단한다. 결국 낙태라는 것에 대해서 '악의 조건'은 단 몇 년 만에 크게 변화했다. 당시에는 '낙태를 하는 것이나 낙태를 동의하는 것' 모두 '악'이라며 여긴 환경을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악의 평범성'에 속했다. '낙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악'이라는 현재의 분위기는 다시 '낙태를 하는 것이나 동의하는 것'이 악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악의 평범성'에 속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였든, 현재였든 균중심리(환경의 변화)에 따라 '악의 평범성'에 들어갔다. 우리 역시 그 사회에 속해서 환경에 따라 나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악의 평범성'에 속하는 것 아닌가. 우리 사회 그리고 나는 낙태의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임산부'나 '태아'의 입장을 생각할까? 그저 각자의 이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성** : 제1장 '세계는 멸망하지 않는다.'와 제10장 '환경주의자와 친환경 사업의 겉과 속'을 통해 환경을 위한 사업에도 악의 평범성이 존재한다는 걸 느꼈다.

1장에서 나사의 기후학자인 개빈 슈이트에 "기후환경에 대해 시간을 정해 두고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헛소리다."라는 말이 정말 새롭게 다가왔다. 지난 초, 중, 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생살을 하면서까지 접했던 환경대한 이야기는 항상 한정된 '기간'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것이 다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기간을 한정해 위기감을 조성하고, 부풀리고 다닌 걸까? 다름 아닌 '기후양아치들'이었다.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후 양아치들은 '언론보도', '저널리스트', '환경을 걱정하는 셀러브리티', '화학기업과 손잡은 환경운동단체'가 있었다. 환경운동가가 기후 양아치라는 것이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다.

'언론보도'는 근거 없는 기후종말을 사실처럼 떠들었고, 오스트레일리아 '저널리스트'는 집권당에 대한 반감 드러내는 도구로 환경을 이용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화재에 경우 해안관목지대의 화재는 100퍼센트 사람에게 의해 발생하고 있었고 2000년 대 이후 화재사건 증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와 관련 있다는 명확한 자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2000년 이후 인구가 600만 명으로 증가했고 1960년대 이후 작은 산불조차 원천 차단하다보니 큰 산불이 날만큼 가연성 물질을 쌓은 것이 주요 문제가 됐다는 사실만 존재할 뿐이었다.

환경을 걱정하는 셀러브리티에게 환경운동은 장난감에 불과했다. 이들은 고에너지 소비생활을 즐기면서 남들에게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올바른 삶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허황된 계획들은 그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었고 신재생 에너지로 산업혁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속적으로 개발도상국에 강요했다. 책에서

나온 예시처럼 댐건설 한번이면 가난을 겪는 사람들의 삶이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셸럽 환경 운동가들은 댐건설이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는 거짓된 핑계로, 환경운동이라는 좋은 포장지를 악용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막고 있다.

‘화학기업과 손잡은 환경운동단체’ 또한 자본의 흐름에 따라 잘못된 환경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애초에 돈이 되는 환경운동에만 관심이 있을 뿐 환경을 위한 환경운동에는 관심이 없다. 단지로 돈으로 얽힌 사이였다. 환경단체에게 환경은 돈이다. 환경운동가들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제공한 대표적인 회사로 엑손모빌이 있다. 미국에 주요 환경 단체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추방하는 일에 앞장서는 동시에 천연가스회사나 신재생 에너지 회사로부터 돈을 받거나 투자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기존 상식과는 다르게 기술의 힘으로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막아내고 있었다. 환경을 위한 방향성은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누르는 일”, “사람들을 더 잘살게 만들어서 회복탄력성을 높여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책을 읽기 전에는 전에 활동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악을 행하는지 모르고 악을 행한 것에 대표적이 사례가 환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환경의 주체들, 악을 저지르는 주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환경운동과 관련 없는, 오히려 독이 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색을 표현하기 위해, 종교적 믿음에 취해 환경을 제 입맛에 맞춰 굴리고, 장난감처럼 사고팔았다. 그들은 환경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저변활동은 ‘악’이라는 행위의 원인을 ‘결과에 대한 무관심’, ‘무관심’으로 정의를 내렸다면 이번 활동을 통해 악의 주체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악을 행하라고 강요하는 권력과 주체가 없음에도 인간은 각자의 탐욕을 위해 환경에 악을 평범하게 정당화 시키고 있었다. 억압하고 강요하는 주체가 없음에도 악을 행하는 인간의 행위는 충격적이었다. 이를 통해 권력과 억압이 없어도 인간은 악을 주체적으로 행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악은 행하는 인간은 사고할 수 있음에도 사고하지 않는 짐승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 악은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 탐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 한** : 3주간의 북클럽 활동으로 평범성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고 추상적인 가치’, ‘악’은 ‘윤리적인 인간의 도덕성을 저버리는 일’로 스스로 정의를 내려 보았고, 이런 관점에서 책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내가 정의한 ‘악’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의하게 되었다. 먼저 책에서 정확한 통계수치를 사용해서 환경에 대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이 인상깊었고, 신뢰가 갔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부분과는 전혀 반대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서 놀라웠다. 아마존의 80%는 건재하다는 사실과, 최근 숲의 면적이 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지구가 녹음을 되찾아 가는 원인 중 일부라는 점이 가장 놀라웠다.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보고서에는 멸망에 관한 내용이 없고, 그저 감소하거나

증가한다는 말만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내가 본 기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멸종위기를 논하는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충격을 안겨주는 내용들도 알 수 있었다. 콩고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무를 태워 연료로 사용해서 그렇게 많은 나무들을 사용한다는 점도 몰랐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로 선진국에서 많은 탄소를 소모한다는 생각이 뒤집히게 되었다.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개발도상국의 나라들로 보낸다는 점도 충격이었다.

원주민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서 환경보호의 탈을 쓴 새로운 식민주의라는 말이 인상깊었다. 물론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종말론적 환경 이야기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신기하게 다가왔지만 우리나라와는 정서가 달라서 그런지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환경운동가들이 기술의 발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중점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내가 본 환경운동가들의 글들이나 발언에서는 기술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에 공감을 할 수 없었다. 환경 기사에 대한 헤드라인을 뽑아내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번에 활동했던 대중매체를 다룬 북클럽 활동이 생각났고, '언론이 자극적이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어느 나라이든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부분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막는다는 부분이었다. 이것도 악의 평범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거대한 세력들이 모여져서 알게 모르게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여기서 내가 정의한 악과 평범성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웠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고 추상적인 가치에서 '환경'에 대한 것은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가 국가별로 다르고, 사람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자체에 악의 평범성은 적용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환경에 대한 악의 평범성은 대표적으로 환경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같은, 그에 얽힌 이해관계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다. 환경에 관해서만 생각한다면 공장식 축산이 훨씬 환경에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고 방목형 축산을 한 동물의 우유나 달걀을 괜히 구매해서 먹는 이유는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에서 '환경을 위하는 행위가 동물에 대한 악의 평범성으로 적용될 수도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악의 평범성은 과연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봤고, 악을 '이익을 위해 윤리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라고 정의해 인간과 동물 간의 이슈도 넓게 확장한 악의 평범성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다. 현대사회에서 악의 평범성은 집단, 사회, 국가를 넘어서 권력구도에서 윤리적인 판단이 적용되는 곳이라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부유한 나라들이 재난 앞에서 회복탄력성이 뛰어나다는 말과 더 잘살게 만들어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이 꽤나 씩씩하게 다가왔다. 모든 나라들이 평균적으로 잘살기는 무척이나 힘들고, 그것은 결국 가난한 나라들이 모든 피해를 입는다는 말과 같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후반부에 나오는 가난한 나라의 인프라 구축을 방해하고, 낚아채는 행태에 대해 읽을 때 더욱 강해졌다. 부의 평준화를 바라지만, 아무리 해도 선진국은 그대로 부

유하고 가난한 나라들은 계속해서 가난에 허덕이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만 같아 입맛이 썩다. 계속해서 나오는 환경을 위해 행했다지만 결국은 부를 위한 것들을 보며 저번 활동시간에 생각났던 ‘악’은 권력에서 오는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나아가서 ‘악’을 인간으로 정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환경 휴머니즘을 위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모두를 위한 자연과 번영’이라는 말이 참 이상적이고 마음에 들었다. 현실이 이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이상적인 신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이상향인 모든 나라들의 부의 평준화가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이상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조금씩 나아질 것만 같다.

환경과 관련된 일들처럼 거대한 규모는 아니지만, 다수가 행하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한 것은 ‘동물원’이었다. 콩고의 국립공원의 동물이야기도 그렇고, 이 책에서 환경 관련 논의처럼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나라나, 발전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에서 동물원은 필요치 않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기반시설이 없으며 경제 개발 수준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관광으로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동물원이 국민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관점이라면 해당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악의 평범성을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의 동물원이라면 달라진다. 일반적인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 같은 구조들은 분명 좋은 영향도 있다. 환경적으로는 감소하는 생태계의 종들을 보호하고, 그 개체 수를 늘리고 조절하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시설이나 체계가 없이 그저 관광거리로 소비되는 동물들이 많고, 동물원에 갇힌 생활에 우울증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저 사람들의 눈 요기로 이용되는 돌고래 쇼 업체 ‘퍼시픽 리솜(구 퍼시픽 랜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 자연 생태계에서 지내야 할 생명체들을 잡아들여, 그저 눈 요기거리로 사용하다가 재난상황이 오거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버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원이 인간들이 동물에게 저지르는 종적인 차원에서의 악의 평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했다.

[토의 후 느낀 점]

◆ 김** : 본인의 진로에 대해 환경을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배신을 당한 것 같이 느낀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기도 했고, 우리가 일하고 싶다고 생각한 장소마저 결국은 다수가 이룬 악의 평범성을 만들어내는 ‘히틀러’와 같은 곳이라는 점이 다가왔다. 또 다른 친구는 이전과 같이 악은 권력에서 오는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너무나 이해되고 공감에 갔고, 그리고 다른 친구는 악은 자본에서 오는 게 맞다고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하는데 결국 악이란 (악의 평범성의 지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 자본과 권력에서 오는 것이 맞는지 다시 고민하게 됐다. 또 한 친구가 동물원이 현대 사회에 널리

퍼진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그것이 악이고, 선진국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도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와서 이번 책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이어 한 친구는 환경에 대한 것 자체가 예시로서 가장 크게 다가왔다고 이야기 했는데 탐욕이 눈을 멀게 한 점이 안타까웠다는 말이 환경양아치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 기억에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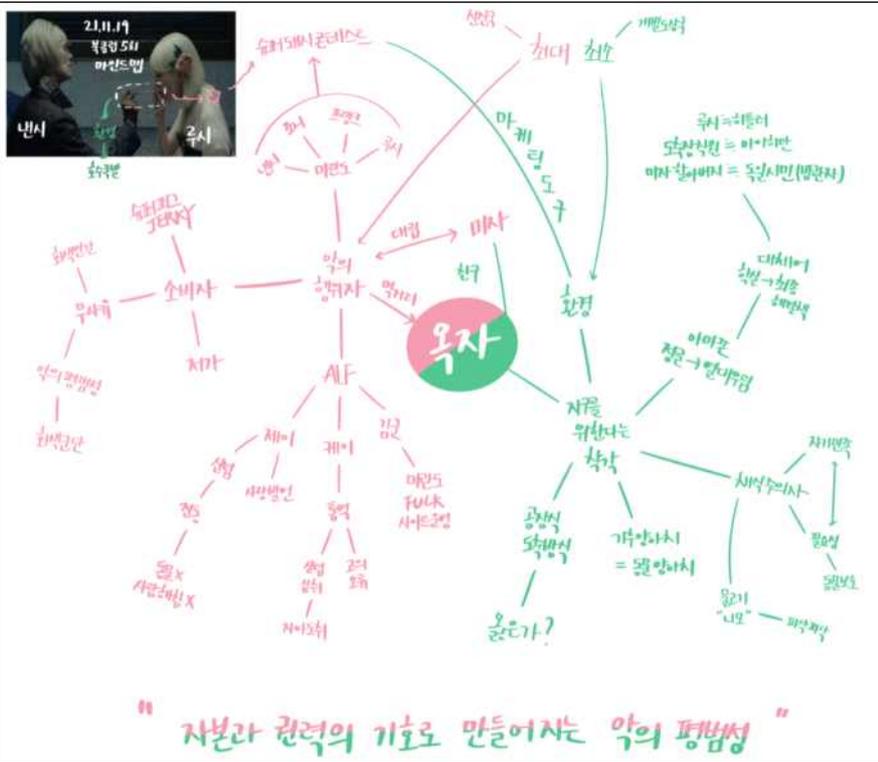
◆ **성**** : 악의 평범성이 생각보다 훨씬 미묘하고 당연하게 받아 들여져 왔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평범성에 대해 사회적 혹은 국가적으로 형성돼있는 그룹과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정의 내린 것 또한 같은 책을 읽었지만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책 또한 무사유로 인해 벌어지는 악을 매우 공감할 수 있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막는 부분에서 악의 평범성을 느꼈다는 부분과 ‘환경을 위하는 행위가 동물에게는 악의 평범성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악의 평범성은 매순간 우리의 곁에 인지하지 못한 순간순간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팀원들 모두 내가 알고 있던 환경문제에 대해 한 번 더 사고해보고 진정한 환경문제는 무엇일지에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느꼈다.

◆ **한**** : 이 책을 통해서 팀원들 모두 한 번 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팀원 중 한 명이 책에 나오는 직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직업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고 말해서 공감이 되었다. 멋있게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이익만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습들에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기후정치에 휩싸여서 내가 잘못된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본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는 팀원의 말에도 공감할 수 있었다. 팀원 중에서 우리가 거대한 악의 평범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 줄 모르는 것이 많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이 발언을 통해서 먼저 나부터도 악의 평범성을 전혀 모른 채로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웠고 결국엔 우리도 힘 있는 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전의 악의 평범성을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친구의 말에 동의 할 수 밖에 없었다. 팀원들이 가져온 사례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내세운 UN을 사례를 보고 당연하게 여겨서 몰랐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낙태처럼 사회적으로 나쁜 것이라 여겨지던 낙태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변화하면서 우리는 예전의 악의 평범성일수도, 지금의 악의 평범성에 속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팀원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토의를 통해서 내가 모르게 속해 있었던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오래도록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21년 11월 17일

참가자대표 : 한**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고삼차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11월 19일(금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7	이름	김**	학번	2017	이름	성**
	학번	2017	이름	한**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활동 내용]</p> <p>환경과 관련된 영화 「옥자」를 감상하고, 이전 활동에서 읽었던 책과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 속에서 나타난 ‘악’과 ‘악의 평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악의 평범성’에 대해 영화에서 나타난 심층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악의 평범성’은 어디까지 확장 시켜 적용할 수 있을지 토의했습니다.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며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마인드맵]</p>  <p style="text-align: center;">" 자본과 권력의 기호로 만들어지는 악의 평범성 "</p>							

[토의 내용]

◆ 김** : 우선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껏 이야기해온 ‘악의 평범성’과 도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에서 읽은 내용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욱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어 옥자를 보고서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 완전 공감하게 됐다. 옥자를 강제로 성관계를 맺도록 만든 점이나, 옥자의 고기를 맛보기 위해서 총같은 것으로 옥자의 살점을 파헤쳐서 뽑는 장면 후에 바로 그 고기를 굽고서는 인간이 먹는 장면이 나왔을 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영화를 보고 나서 바로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역겨웠다. 그리고 그 고기가 군중들에게 뿌려지는 곳도, 아이, 노인, 청년 할 것 없이 그것을 맛있다며 먹는 것도,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공장식 과정을 영화에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으며, 난시가 여론이 안 좋은 것과 관련 없이 저렴하면 다 사 먹는다는 이야기는 마치 우리 시대에서 이미 본 듯한 자본주의의 완벽한 그리고 거대한 무사유인 것 같아서 충격적이었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책에서 ‘공장식 과정만이 문제라면, 자연에서 잡아먹는 것은 문제가 없나?’ 하는 부분이 생각났다.

또 나는 영화에서 악의 평범성의 지시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슈퍼돼지 생산기업인 ‘미란다’ 그들은 경제적 이익과 그들 그룹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옥자와 미자를 완벽히 이용하려고 하며, 그 거대한 그룹의 윗선인 ‘루시’ 등은 그 악의 평범성의 지시자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그룹이 악의 평범성의 사례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 그룹 속의 직원들이 죄책감 없이 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자가 어린 시절에 옥자와 찍은 사진을 보고서 애잔한 표정을 짓는 ‘총 쏘는 직원’은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이전 과정에서 말한 도축장과 도살장이 얼마나 ‘나치’와 닮았는지, ‘아이히만’과 닮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 앞서서 이야기 되던 환경의 플라스틱이나 원자력 등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슈퍼돼지’를 만드는 것은 오로지 부정적이기만 한가? 만약 그들이 그러한 기술을 내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더 적은 육류를 섭취할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속에 속해있는 일반인들이 육류의 섭취를 줄이지 않는다면 육류의 섭취량은 같을 것이고, 결국 슈퍼돼지 ‘옥자’를 만든 기술이 더 적은 ‘돼지’를 희생시키지 않을 방안이기도 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또 이어서 우리는 실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결국 덮이고 덮이는 것을 봐왔다. 영화 속에서 그룹 ‘미란다’마저 호수를 폭발시켰음에도 다시 환호를 얻고 있지 않은가?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옥자’를 만들 것이고, ‘옥자’를 죽일 것이기에 짹짹했다.

두 번째 그룹은 ‘ALF’이다. 나는 과연 그들이 정말 ‘동물’을 사랑해서 그들을 돕고자 그 행위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마치 환경 양아치들이 존재하듯, 동물 양아치는 없을까? 특히, 나는 그런 점을 두 가지 장면에서 느꼈는데, 처음은 그들 단체의 신념과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폭행을 하고서는 ‘계획’은 끝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하는 점이나, 마지막에 옥자와 미자를 도우러 돼지 살육 현장에 가서 정말 옥자만을 찾은

것. 물론 그것은 그들의 책임감이고 해야 하는 행위이며, 현실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전에는 모두를 구하겠다고 옥자를 '희생'시켜야 한다고 했으면서, 마지막에는 옥자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옥자'를 다시 희생시키는 일을 벌였다. 만약 그들이 '동물을 구하기'만을 원한다면, 옷 하나로 막을 수 있는 전선줄을 옥자와 미자만을 위해 벌렸을까? 왜 그들은 그 전선줄을 자르거나 벌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옥자들이 자유롭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난 그들이 동물을 구한다는 것을 이유로써 본인들의 신념을 챙기는 모습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이어서 환경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거대한 악의 평범성 속에서 결국 피해자는 또다시 가난하고 권력이 없는 동물이자 어린 아이라는 것이나, 결국 미자가 옥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재력의 상징물인 '금돼지'로 교환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인상 깊었다.

다만, 영화 리뷰에 '원래는 영화 보고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초밥을 먹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 충격이었다. 어떠한 생명을 먹고 살아야 하는 인간을 비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돼지', 정확히는 '옥자'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건지. 만약 후자라면 물고기들 사이에 '니모나 파닥파닥'은 없을지. 하는 여러 생각이 들었으며, 채식조차 지구의 어떠한 자원을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서 체력적으로 쓰러지던 ALF 멤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 까지 하는 게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살아가면서 완벽 선일 수 없고, 어떤 악을 행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같았고, 나 또한 이러한 책을 읽고 영화를 본다고 한들 완전히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게 아니라 깨달았을 뿐이라는 생각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비참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후에는 내가 행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 성** : 영화 옥자를 보면서 인간의 탐욕에 의해 악이 무자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느꼈다.

미란도는 자신이 언니보다 더 뛰어난 사업가임을 증명하기 위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한다는 명목을 앞세워 "슈퍼돼지"라는 품종을 개발한다. 품종개발과정부터 유전자조작을 위한 교배 과정까지 생명에 대한 존중, 환경을 위한 마음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슈퍼돼지의 사업성을 대중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먹거리', '유전자 조작이 아닌 대자연의 선물', '축산업계 혁명'이라는 마케팅 구호를 가지고 홍보한다.

동물 해방 단체로 등장하는 ALF 또한 미란도와 다른 인간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ALF의 통역을 담당하는 요원 케이는 자신들 만의 프로젝트에 취해 미자(옥자를 키운 주인)의 말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통역한다. 또, ALF의 수장인 제이는 케이가 통역을 일부러 다르게 한 것을 고백했을 때 ALF의 전통에 무시했다는 것에만 화를 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 쿠키 영상을 보면서 '미란도 퍼킹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동물보호를 위한

단체인가?, 낸시 미란도에게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겼다. ALF 단체가 동물해방을 통해 진정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자신들의 도덕적인 신념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큰 쇼에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영화와 책을 읽으면서 악은 확실히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주체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됐다. 저번 책에서 환경운동가들이 자신의 자산을 위해 환경을 장난감으로 여겼던 것처럼 미란도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ALF는 전통이라는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 동물과 환경을 악용하고 있다. 또, 미란도 언니의 “사람들은 싸면 다 좋아해, 어차피 싸면 다 팔리게 돼 있어.” 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악을 정당화 시키고 자신의 악의 책임을 구매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느껴졌다.

영화를 보는 동안 지난번에 읽었던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란 책에 ‘인간은 도시를 건설하면서 더 많은 부를 쌓기 시작한 다음에야 자연을 아끼고 배려하고 돌봐야 할 무언가로 여기기 시작했다, 유럽은 19세기만 해도 아마존을 위험과 혼란이 가득한 “정글”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이 되자 아마존을 조화롭고 매력적인 “열대우림”으로 여기게 됐다.’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 한** : 초반에 화려하게 언변을 펼치는 CEO가 회사 환경과 동물을 윤리관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는데, 그 방식이 전대회장과 전 CEO인 자신의 언니를 유쾌하게 깎아내리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냥 진실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이 예상은 “연구진들의 사랑과 정성 속에 슈퍼 아기 돼지가 탄생, 자연 교미 방식으로 성공적 번식 하나뿐인 품종을 탄생시킴”이라는 말과 새로운 품종은 축산업계의 혁명이라는 발언과 베스트슈퍼 돼지 콘테스트를 진행하여 가장 크고 아름답게 키워낸 돼지들에게 순위를 매기는 콘테스트를 생중계한다는 발언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다.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과연 동물을 위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회사 가치관을 환경과 동물로 정한 것은 그저 미란도라는 회사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자 이미지 쇄신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콘테스트에서 윤리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동물이자 맛이 굉장히 좋은 식육 동물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부분에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에서 본 “환경을 위해서라면 공장식 축산이 낫다.”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환경과 동물을 같은 범주에 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환경이랑 동물은 같은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 들기도 했다. 슈퍼돼지인 옥자가 절벽에서 떨어진 미자를 보고,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가 대신 떨어진 부분을 보면서 지능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렇게 지능이 높은 동물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다. 마지막에 온몸이 엉망인 돼지가 금돼지를 주고 옥자를 데리고 나가는 미자에게 자기 새끼를 억지로 떼어내어 우리 밖으로 내보낸 것이 너무 슬펐다. 마지막에 많은 슈퍼돼지들이 갇힌 채로 우리에서 울부짖는 장면이 머리에 깊게 남았다.

이 영화에서 악은 크게 세 부류인데, 윤리적인 행위를 저버리고 소비자들에게 거짓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한 미란도 회사 직원들과,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고, 신념으로 행동한다는 자신의 바른 윤리성에 도취되어 자

신들의 도덕적 위상을 알리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당사자에게도 거짓을 고한 ALF 단체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랑 다를 것 없는 대중들. 이렇게 세 부류라고 생각한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옥자와 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악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영화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악이라 단정 지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낸시와 루시는 결국 최고의 비즈니스를 한 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동물의 윤리를 지키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결국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대부분 저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조금 낫더라도 거기서 거기일 것이다. 그렇지만 낸시와 루시, 미라도 회사를 악으로 보는 이유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동물에게 인도적이지 않은 행위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렇게 치면 유전자 조작 식품인 것을 알면서도 슈퍼돼지들을 싸다는 이유로 맛있게 먹는 사람들도 결국 악에 해당하게 된다. 그럼 오늘 저녁 식재료를 고르느라 면밀하게 살피며 사 왔던 나도, 그 악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문이 든 것 같다.

책에서는 채식주의자들에 대한 안 좋은 의견이 많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윤리적인 이유라면 채식주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모두가 속해있는 악의 평범성의 실체를 봐서 그런 건지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고, 그저 참담하기만 했다. 그럼에도 스스로 모순적이라고 느끼고, 찝찝한 이유는 이 영화를 본 충격으로 오늘 저녁인 삼겹살을 먹지 못하고 굶게 되더라도, 결국 금방 잊을 거고, 또 다시 악의 평범성 속에 스스로 들어가 맛있게 식사를 할 것이라는 점이였다. 이로써 환경을 위해 공장식 축산을 해야 한다는 책의 의견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게 되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지더라도, 결국 살아있는 것이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조차도 사실 인간중심으로 돌아가는 생각인 것만 같아 너무 처참했다. 영화 보는 내내 언젠가 들었던 “생태계의 가장 큰 교란 종은 인간이다.”라는 글이 계속 생각나는 영화였다

[토의 후 느낀 점]

◆ 김** :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가장 열렬한 토론이 나왔던 회의라고 생각한다.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세부적인 생각이 나뉘는 것이 좋았는데, 나와 한 팀원은 악의 무리를 똑같이 둘로 나누고 이야기한 반면, 다른 팀원은 세 팀으로 나눴는데 내가 영화를 보면서 문득 생각하다가도 감상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이 나와서 캐릭터 ‘미자 할아버지’에 대한 ‘악의 평범함’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는데, 딱 잘라서 ‘악이다, 아니다’에 정답을 내릴 수 없었기에 그 질문이 계속해서 상기된다. 또 다른 팀원이 ‘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악이라 보느냐’는 질문이 내가 생각해볼 수 못한 부분이라서 생각해볼 내용이 생긴 것 같아서 인상 깊었다. 그 질문에 대한 두 팀원의 의견이 상반됐기에, 각 의견을 들어보고 더 고민할 논증들을 알 수 있었고, 도서에서 ‘정글과 열대우림’의 단어에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나온 ‘학살과 최종해결책’이 생각났다. 이런 부분에서 논외로 ‘사회적 인식’과 ‘단어’의 연관성까지 고민하게 될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많이 했던 토론 과제였다.

◆ **성**** : 토의를 하면서 ‘저렴하면 다 먹는 것’을 무사유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옥자에 대입해보면 루시 미란도는 ‘히틀러’고 도축하는 직원을 ‘아이히만’ 즉, 악의 평범성이 나타나는 인물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또 영화에서 악이 아닌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팀원분의 말에도 많은 공감을 했다. 미자를 제외하고 할아버지, ALF 단체, 미란도 일가 모두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이 한일, 할 일의 결과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타자를 이용하는 모습에 악함을 느꼈다. 지난번 책과 연관 지어 토의를 하면서 환경 양아치 뿐 아니라 동물 양아치도 존대한다는 팀원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토의를 하는 내내 ‘인간이 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악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기반 한 생각을 가진 환경단체에 생각과 동물보호단체와의 입장은 극과 극으로 분명하게 나뉠 것 이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나는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악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더 생각해봐야 할 의문점으로 남았다.

◆ **한**** : 지금까지의 북클럽 활동 중에서 가장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토의한 활동이라고 초반에는 생각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역시나 다른 생각들이 많아서 재미있었다. 인간의 탐욕에 의해 악이 무자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팀원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고, ALF가 동물해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는 의견에도 공감할 수 있었다. 각자 영화를 볼 때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았는가’가 다 달라서 색다른 관점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영화 본 후 혼자 가지고 있던 찝찝한 감정들에 대해서 팀원들과의 토의를 통해서 내가 이번 영화를 환경보다는 어쩌면 환경 속에 속하는 동물과 인간 사이의 악의 평범성에 집중해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환경과 동물이 분리된다면 동물을 더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021년 11 월 19 일

참가자대표 : 한**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고삼차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11월 24일(수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7	이름	김**	학번	2017	이름	성**
	학번	2017	이름	한**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활동 내용]</p> <p>도서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를 읽고, 책에 대한 감상문을 공유하고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악을 저지른 행위를 ‘악의 평범성’이라 부를 수 있는지, ‘악은 평범한가?’에 대한 결론을 내려 보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와 함께 책을 읽은 각자의 감상문을 발표하고,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며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마인드맵]</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 font-weight: bold;">"당신들은 이쪽 사람이 될 거야"</p>							
	<p>[토의 내용]</p> <p>◆ 김** : 우선 n번방 최초 보도자이자 도서의 저자인 불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책을 읽기만 하는 것으로도 지치고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취재의 중점에 서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 것에 존경심이 들었고, 그 모든 과정을 본인들의 최선의 결과물로 나타낸 것에 박수를 보냈다. 나도 미디어를 공부하는 전공생으로서 언론이 얼마나 여론몰이와 화제를 바라고 예민한</p>							

지를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이라는 것에는 충격을 받았다. 특히 '실화탐사대'의 경우에는 평소 즐겨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매우 실망할 정도였다.

도서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를 읽고 토론 내용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즉 n번방의 가해자들의 행위는 악의 평범성에 속하지 않는다. 내가 그동안 북클럽을 진행하며 얻은 악의 정의는 '무사유, 그리고 본인의 이득, 이익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를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행위'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전에도 말했듯 이번 활동을 통해서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공고해졌다. 내가 주장하는 평범이란 '시의성이 있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적 그룹의 평균'인데, 우리의 큰 사회, '나라 혹은 세상'에서 그들은 절대 '평범'해질 수 없다. 그들은 그저 '악'이다. 물론 그들은 그들의 무리 속에서는 평범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히 그들 스스로 악이 평범이 되는 사회를 만들었고, 오로지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 악의 본진에 들어갔을 뿐이다. 당연히 그들이 만든 악의 무리에서 그들은 평범했다. 그들의 사회 자체는 우리의 사회에서 '악'으로 통하는 것이 옳다.

그들은 사회 전체가 전쟁분위기로 변해가며 그 속에 자동적으로 속해지던 '아이히만이나 그 당시 독일인'과는 다르다. 아이히만 등의 나치군이나 독일인이 '악의 평범'이라는 합리화 속에 속할 수 있던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혹은 세상' 전반의 분위기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n번방 가해자들은 그들과는 다르다. 우리의 큰 사회, 즉 '나라 혹은 세상'은 현재 성범죄가 악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다소 평화로운 분위기이다. 그들은 그들의 쾌락이라는 이익을 위해 평범한 이 사회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그들만의 사회를 만들어갔다. 그들은 그냥 '사회에 속하지 못할 범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책에서 '판례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너무 공감이 갔다. 우리 사회는 성범죄는 나쁘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이야기로 큰 사회 속에서 '성범죄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작은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건 아닐까?

내 생각 속에 악은 평범하다. 언제든 우리 사회는 악으로 변질될 수 있고, 수많은 사례가 그를 기반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언제든 악으로 변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악을 견제하며 계속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생각하며, 모두에게 가장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고민해야 한다.

◆ 성** : 가장 첫 번째 시작이었던 '2019.7월, 손안에 지옥을 보았다.'라는 말이 이책을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느꼈다. N번방을 주도했던 갖 갖, 박사 등은 악이 아닌 악마 그 자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무관심 하지 않았다. 심지어 '여자', '아이'를 목표물로 정해놓고 가해대상을 물색했다. 자신들의 행동이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았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즐기고 고통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언론이 그들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큰 오류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결코 평범하지도 않으며 악도 아니다. 이전 활동에서 악은 충분히 사고를 할 수 있음에도 사고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행위이며 인

간만이 악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정리했었는데 그들은 다른 의미에서 인간이 아니다. 사고자체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학교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평범하다 말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평범함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다.

기존에 악을 무관심이라고 이야기 한 것에 기반 해 이 책에서 ‘경찰’과 ‘언론의 태도’가 악이라고 느껴졌다. 처음 경찰에 신고하려했을 때 경찰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면 신고하기 힘들어요.” 라는 무책임한 말을 했다. 친고죄가 사라진지가 언젠데. 경찰은 자신의 직무에 무관심한 태도로 신고를 응대했다. 언론사 또한 피해자는 뒷전이고 가해서사를 보도하는데 혈안 돼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뭐였나?’라는 질문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불꽃추적단은 지난날의 잔상을 이야기하기 위해 언론과 접촉한 것이 아니다. ‘지금의 피해자의 일상은 어떠가요?’, ‘정부에서 피해자 보호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필요한 입법은 무엇인가요?’, ‘숨방망이 판결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지금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디지털 성범죄의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위해 언론과 접촉했다. 불꽃추적단은 가해자 연대를 부수어 나가는 첫걸음은 더는 피해 영상을 유포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는 것’ 이라고 이야기 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는 디지털 성범죄로 분노하고 불안한 여성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책에서는 나의 ‘예민함’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고 표현했지만 예민함 보다는 ‘관심’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방관하며 묵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민함으로 다가갈 것이고 묵인 하지않고 방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파헤치는 행동은 관심으로 다가올 것이다. 에필로그에 카톡 대화 부분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겠지.”라는 부분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다. 불꽃 추적단 둘만 극복해 나간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관심, 국가의 관심, 법조계의 올바른 관심이 필요하다. 불꽃추적단이 신변보호요청까지 하면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간 것처럼 나 또한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 한** : 먼저, N번방 사건으로 같이 분노했던 일을 다시금 보는게 참 괴로웠다. 그렇지만 그저 밖에서 알게 된 우리들도 이렇게나 속이 울렁거리는데, 그 중심부에 들어가서 직접 모든 것을 보고, 들었을 추적단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텍스트로만 보고 있는데도 토악질이 나올 것만 같았다.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동안 온몸에 소름이 자꾸만 돋았다. “N번방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먹고 자란 것이다.” 라는 말이 너무 슬펐다. 그 많은 피해자들이, N번방에 갇혀 지낸 이유가 고작 판결 때문이라니. 처벌이 너무 적어서 수도 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N번방에 가두어진 것이 말도 안 되게 느껴졌다. MBC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에 한동안 시달렸다는 부분에서 큰 화를 느꼈다.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방송사에서, 기자를 준비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 보도준칙을 위반하다니. 그저 취재거리로만 보는 것이 그대로 느껴져 속이 좋지 않았다. “박사가 잡히고 6개월이 지난 2020년 9월에도 우리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다.” 라는 문장에

숨이 턱 막혔다. 기자도 아니고, 그저 기자준비생일 뿐인데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해온 추적단분들이 너무 안쓰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심리상담을 지원받아 진행했다는 구절에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책을 읽으면서 정부와 사법기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청 내 사이버수사대와 별도로 중앙 정부가 지휘하는 디지털 성범죄 가상공간 범죄를 전담하는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에 백번 공감할 수 있었다. 처벌 형량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전에 나왔던 국회의원들의 의식 수준을 보면 당장에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았기에 수사기관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적단 불꽃 분들이 마지막에 제시한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조주빈이 텔레그램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여성을 협박해성을 착취하고, 수만명이 넘는 회원에게 암호화폐를 받고 성착취 영상과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거래했다. N번방 사건 이후 가장 많이 접한 기사는 ‘악마 조주빈’, ‘악마의 삶 조주빈’ 같은 헤드라인이었다.

내가 이번 북클럽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이유도 이것이 처음이었다. 여러 기사들에서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다. ‘평범했던 남고생은 어떻게 악마로 변했나’ 아직도 기억나는 헤드라인이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의문을 감출 수 없었다. 이들은 평범한가? 이것이 ‘악의 평범성’에 해당하는 일인가? 해당할 수 없다. 이들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위대한 악마도 아니고, 그저 범법행위를 저지른 지질한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다. 수 많은 피해자들이 이들에게는 그저 돈벌이로 보였다. 그렇기에 방을 개설해서 사람을 피어내 추적할 수 없는 암호화폐로 대가를 받고 팔았다. 사람을 돈에 팔아먹는 것이다. 예전에 행했던 노예 경매나 다름 것이 없는 행위들을 저질렀다. 이전 활동 시간에 보았던 책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나온 ‘악의 평범성’의 특징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자’였다.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이 악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건 ‘무사유’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했다. 무사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N번방 가해자들은 타인의 고통을 즐겼다. 그 고통들을 자신들의 유희로 이용했고, 그 공포심들을 이용해서 왕처럼 군림하고, 가해자들 사이에서도 권력을 나눴고 그 권력을 즐겼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N번방 가해자들에게 ‘악의 평범성’, ‘평범성’이라는 변명책을 쥐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 책을 통해서 비단 N번방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악의 평범성을 넓게 보아서 적용시키는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에서도 ‘악의 평범성’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악은 결코 평범할 수 없고, 타인의 평범함을 파괴하는 것이 악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추적단 불꽃님들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며 저번 활동에 봤던 옥자의 ALF 집단들이 생각났다.

둘 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들을 낳고 있는 것이 보여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것과 자신의 도덕적 위상을 알리기 위해 행하는 것은 많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책에서 나온 “당신은 지금 어디 편에서 있습니까? 가해자 연대를 부수어 나가는 첫걸음은 더는 피해 영상물 유포를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깊게 와 닿

았다.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 않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를 알려주는 것 같았다.

[토의 후 느낀 점]

◆ 김** : 악은 무관심이라는 생각에 공감하게 됐다. 우리 사회의 악은 무관심으로부터 오고 이 책에서 더는 피해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태도라는 다른 팀원의 의견과 함께 더욱 그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었다. 다만 ‘무관심이 악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나는 ‘악은 무관심을 자양분으로 자란다’는 생각에 가깝다고 느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악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한다는 것과 비슷한 생각이어서 놀랐고, 다들 이 책을 통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느꼈다는 것이 기억에 남고, 씁쓸했다. 또한 친구는 옥자의 ALF 집단들이 생각났다고 했는데, 정말 인상 깊었고 듣자마자 너무 공감이 갔다. 신념과 행위는 다르다는 의견이 한 번에 이해가 됐고, 토론을 진행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악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지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했다.

◆ 성** : 팀원들 모두 오랜기간 한 개인이 직접 극한의 상황에 들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취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대단하다고 느낌과 동시에 안쓰럽다는 생각을 했다.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범죄에 맞는 수사기관이라고 만들어 졌으면 한다는 팀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에서의 답답함을 느꼈다. 악은 평범할 수 없다는 의견과 악은 평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모두 나왔는데 난 여전히 악은 평범하지 않은 것 같다. 토의를 하면서 “우리의 사회가 있고 개네의 사회가 있다.”는 말은 정말 인상 깊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사회에서의 악의 평범성과 개네의 사회의 악의 평범성이 다른 걸까?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문다.

◆ 한** : 악이 행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았다는 친구의 말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많이 악과 평범함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좁은 시야로만 보고 있어서 사고를 넓히는 것은 어렵다는 걸 체감했다. 경찰의 무관심, 언론의 태도들이 정말 악하다고 생각하고 악이 무관심이라고 생각한다는 친구의 말에 이전부터 말했던 악은 곧 무관심이라는 것을 좀 더 느끼게 되었다. 책에서 더 이상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는 태도를 추구하는 것을 보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관심이 악의 평범성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했고, 무관심을 지양해야겠다는 친구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보편화된 악이 있으므로 악은 평범하다는 의견이 신기했는데 듣다 보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번부터 서로 이야기하는 범위가 달라서

	<p>토의가 재미있었다. N번방은 자신들의 사회를 만들었고, 그 사회에서 평범한 거기 때문에 N번방 가해자들은 악의 평범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이번 토의를 통해서 악은 평범하지 않다는 의견은 바뀌지 않았지만, 악을 만드는 것과, 보편적인 악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p>
--	---

2021년 11 월 24일

참가자대표 : 한**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고삼차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7	이름	김**	학번	2017	이름	성**
	학번	2017	이름	한**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활동 내용]</p> <p>도서 「정의란 무엇인가」을 읽고, 책에 대한 감상문을 공유하고 사회에 나타나는 평범한 악의 모습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평범함'이 무엇인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와 함께 책을 읽은 각자의 감상문을 발표하고,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며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마인드맵]</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토의 내용]</p> <p>◆ 김** : 정의는 정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고, 고등학교 때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나 전부 과학과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듣고 이름조차 듣기 어려웠던 사람들이нде 도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들으려니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공리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 모두 처음 들어 보는 내용이라서 낯설고 어려웠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론은 공리주의와 그와 관련한 열차 이야기이다.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라</p>							

고 생각해왔는데, 책에서 풀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읽다보니까 정말 수많은 고민이 머리를 때렸다. 그 과정에서 공리주의가 정의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책에서 칸트와 롤스의 말이 여럿 나오지만 가장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공리주의의 치명적 약점’ 때문이다.

내가 공리주의에 가장 충격을 받은 내용은 나는 현재 우리의 사회가 ‘다수의 정의로 현재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내가 공리주의적으로 정의를 생각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에 놀랐다. 더해서 ‘악을 언제든 우리의 사회에서 단체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 평범을 ‘정의’로 보겠다는 내 인식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를 나쁘게만 보면 안된다고 한 부분이 계속 맴돌며 노예제도를 옹호한 것에 대해서 여러번 생각하게 됐는데, 최근 읽은 기타도서에서 한 주인공이 ‘국가의 힘(권력)은 진리로부터 나오며, 국가의 진리는 국민을 위함인 것인데 어찌하여 그러한 모든 과정을 빼먹고 권력을 권력으로만 행하려고 하느냐’는 이야기가 내가 읽은 책의 내용을 관통한다고 생각했다. 또 내가 책을 잘못 이해한 것일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치는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어서 정치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여태껏 말하던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의 평범은 ‘권력이나 자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현재의 정치가 ‘악의 평범’을 이끄는 ‘권력과 자본’의 중점에 있는 어떠한 장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의는 공리주의도 아니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의의 평범은 ‘개인의 도덕적 신념이 모여 만드는 사회적 합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 성** :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평범함에 기준 중에 하나였던 도덕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도덕적 미덕’과 ‘실천적 지혜’가 가장 기준에 생각했던 평범함의 개념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1차 목표를 좋은 인격 형성으로 이끄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공정하게 행동해야 공정한 사람이 되고, 절제된 행동을 해야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용감한 행동을 해야 용감한 사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도덕적 미덕이 행동으로 배우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처음부터 올바른 습관을 길러야 하고 도덕교육을 통해 어떤 상황에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 교육이란 규칙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기르고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습관이 필수적이지만 도덕적 미덕의 전부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새로운 상황은 늘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어떤 습관이 적절한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상황에 도덕적 미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천적 지혜란 인간이 선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의 이상적이고 진실한 상태로 실천적 지혜가 있

는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최고선을 찾으려는 노력한다고 한다.

책을 읽기 전 까지 도덕적 미덕은 타고나는 것 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행동으로 배우며 습관을 통해 도덕적 미덕을 길러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새로웠다. 실천적 지혜 개념을 통해 인간의 최고선을 찾으려는 노력이 정의에 평범성이 아닐까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항상 상황은 변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인간의 최고선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 사회의 평범성이 악으로부터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저자의 말처럼 정의의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을 놓고 공개토론',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해 공개토론'하는 방법과 도덕교육이 정의의 평범함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라고 느꼈다.

이번 활동에서는 평범함에 무조건 적으로 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평범함에는 도덕적 선이 포함된다고 생각했다. 도덕적 선 중 에서도 보편적이고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자연적 의무를 평범함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었다.

또 9장의 충성심의 딜레마 부분을 읽으면서 아이히만이 자손들은 죄가 없다고 말한 이유가 도덕적 개인주의에 따른 것 일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덕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우리를 강제할 수 있는 도덕적 의무의 원천이라고 봤기 때문에 아이히만의 자손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행위를 자유로운 선택권에 기반 해 행해져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아이히만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행동의 원인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은 것 같다.

◆ 한** : 이 책에서 정의를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공리나 행복 극대화, 선택의 자유 존중,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이다. 그 중에서도 나는 책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세번째 방법이 마음에 맞았고, 칸트의 이론이 개인적으로 와 닿았다. 정의를 생각할 때, 개인은 타인의 행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핵심인 것 같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악의 대부분은 자신의 행복에 타인을 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칸트의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능력이 있으며, 이는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다.' 라는 말이 인상깊었다. 지금까지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계속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명확해지는 것만 같았다. 또한 내가 이전에 정리했던 '평범성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두가 윤리적이고 선을 향한 추상적인가치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평범성은 이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칸트가 말하는 타인을 돕는 이유가 단지 그 행위에서 느끼는 쾌락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면, 도덕적 가치가 부족하다는 말에서 옥자의 ALF단체가 생각났다. 자신의 도덕적인 위상을 알리는 쾌락 때문에 동물 보호와 동물 탈출 쇼를 보여주는 그 행위를 우리는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치의 목적이 인상 깊었다.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게 만드는 것,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언어능력을 발휘할 때,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본성을 칸트가 말한 ‘이성적으로 행동할 능력’이라고 보고, 정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와 국가, 또는 큰 규모의 정치 말고도 작은 규모의 활동도 정치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참여해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이성을 깨우는 역할을 해서 시민의 의식을 높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책을 읽으면서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정의에 대한 가치관을 세울 수 있었다. “선한 의지가 선한 까닭은 그것이 어떤 효과나 결과를 낳아서가 아니다. 그것은 널리 인정받든 그렇지 않든 그 자체로 선하다. 비록 이 의지가 원래의 의도를 실천할 힘이 매우 부족하다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얻을 수 없다 해도, 그것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라고 칸트는 말했는데, 이 문장이 인상깊게 다가왔다.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정의를 칸트의 말처럼 ‘선한 의지로 행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의를 행해서 나온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 행동했다고 해서 사회 기반을 이루는 체계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책을 읽으면서 확립한 가치관과, 이전의 활동들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종합해서 정의의 평범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는데, ‘선한 의지로 행하는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다수가 선한 의지로 행하는 이성적인 판단들이 결국 사회속에서 나타나는 평범한 악들을 평범하지 않게 만들고,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관찰과 관심’이라고 생각했다. 이전의 활동들을 통해서 무관심이 악을 형성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정의의 평범성을 지닌 사람들이 관찰과 관심으로 연대해야 악의 형성과, 악의 연대들을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동료 시민처럼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타인을 돕는 일반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문장에서 생각보다 현대사회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그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돕는 것으로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토의 후 느낀 점]

◆ 김** : 팀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이해가 되는 기분이었고, 한 팀원이 윤사 다시 듣는 기분이라고 했는데 고등학생 때 사회탐구과목에서 윤사가 제일 쉽다고 하던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책이 어려웠고, 그만큼 이번 토의를 한 게 다행이고 팀원들의 이야기가 내 감상문보다 훨씬 의미있고 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정의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관심을 갖고 범죄나 악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한 팀원이 칸트의 ‘선한 의지가 선한 까닭’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줬는데 더 공감이 됐고, ‘개인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이용되서는 안된다’는 책의

내용을 토론하면서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또 한 팀원은 '도덕적 미덕'이 배우는 것이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새로웠다고 했는데, 나는 반대로 무조건 교육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맞춰서 길러져왔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팀원들 사이에서 같은 내용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른 생각을 한 이유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져왔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에 사회에서 우리가 가야하는 방향을 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틀린 내용이나 더 고민해야하는 내용(악, 정의 그 모든 것에 대해)을 알 수 있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현재 사회의 도덕적 교육이 더 나아가고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 **성**** : 토의를 하면서 쾌락적인 것 때문에 행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는 칸트의 말에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었다. 팀원분이 이에 사례로 옥자의 ALF 동물보호 단체를 예로 들어줘서 매우 공감했다. 정의에 평범성은 '의지로 행하는 관찰과 관심'이라는 팀원분의 정의 또한 알맞다고 생각했다. 팀원분한분은 악의 평범성을 자본주의로부터 나오는 중심이 되는 무언가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의 완벽한 사례는 현 정치아닌가 라는 말에도 많은 공감을 했다. 정의의 평범은 이상적인 요구지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의의 평범함이 일상적인 요구가 되는 현상을 위해 내가 해야할 일들을 정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 **한**** : 도덕교육 자체가 사회의 평범함을 구성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는 팀원의 의견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시민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도덕교육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아이히만의 발언이 도덕적 개인주의에 기반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에 나도 다시 한번 아이히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다수가 생각하는 정의가 정의의 평범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리주의를 보면서 전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는 팀원의 의견이 내가 가지지 않았던 생각이라서 새롭게 다가왔다. 공개 토론이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다는 의견들에 정의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었고, 각자 생각하고 있는 정의의 평범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2021년 11 월 26일

참가자대표 : 한**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고삼차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12월 01일(수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7	이름	김**	학번	2017	이름	성**
	학번	2017	이름	한**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활동 내용]</p> <p>7주차동안 해왔던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회차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느낀 점과 가지게 된 신념, 생각들의 변화들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평범성을 지켜냈던 과정을 통해 앞으로 정의의 평범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 방식과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인드맵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p>							
	<p>[마인드맵]</p>							

[토의 내용]

◆ 김** : 1주차 : 악의 평범성이란 평범했던 사람들로부터 무사유로 만들어지는 악의 무리.

2주차 : 살인 등 누군가의 생명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악의 평범성에 속할 뿐, 악을 행하기 전처럼 평범함에 속할 수는 없다.

3주차 : 악의 평범성은 '무사유'로부터 오고, 다수는 평범일 뿐 정의가 아니며, 즉, 평범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4주차 :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스며든 환경에서 '악의 무리에 속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악의 평범성

5주차 : 무사유를 이유로 나도 악의 평범성에 분명하게 속해있다.

6주차 : '악의 평범성'은 '악'과는 다르고, 본인을 위해 큰 사회의, 나라나 세계, 도덕적 이념과 다른 '악의 무리'를 만들고 속한 사람은 '악의 평범성'이 아니다.

7주차 : '악의 평범성'은 '공리주의'의 치명적 약점이 만들어낸 전체의 악, 그리고 어떻게든 '악의 평범'은 지나고 우리의 개인적 신념이 다수가 되어 다시 가져온 정의의 평범성.

첫 1회 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읽고 관련 토론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했던 생각보다 인간이 지금의 비교적 도덕적이고 평등한 규범을 만들어 올 때까지 훨씬 더 잔혹한 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2회엔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 속에 유대인의 토지 전쟁을 통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재차 충격 받았고, 3회 때는 무사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페라를 보러 간 사람들처럼 나는 언제, 무엇을 모르고 악의 평범성에 속한 사람에게 박수를 쳤는지 궁금했다. 4회에는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언론과 광고의 홍보로서 환경에 대한 무지(무사유)가 결국 히틀러처럼 악을 주도한 환경양아치들을 머리꼭대기에 올렸는지 알게 됐고, 그에 내가 악의 평범성에 속할지도 모른다는, 정확히 속했을 것이라는 인정하기 싫은 확신에 속상했다. 5회는 내가 먹는 것, 사는 환경 그 모든 생존을 위한다는 이유로 악의 평범 속에 속해있다는 것을 확실한 사례로 알게 돼서 비참했다. 6회에는 '악'들이 '악의 평범성'을 이유로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이 화가 났고, 7회에는 정의라고 생각해 행한 행위가 '공리주의'로서 악인지도 모르고 행해서 '악의 평범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고, 어떻게 내가 이 사회에서 옳은 도덕적 생각을 통해 정의의 사회를 이어나갈 방법을 찾을지 막막했다.

처음 북클럽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악의 평범성'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악을 행하며 살긴 해도, 살인 등 큰 악을 저지르는 주체는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첫 책을 읽고서 '아이히만'을 보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한나 아렌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는 피해자로만 남지 않으며, 악이 평범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 후에 '악이 평범하든, 아니든'은 악을 저지른 것과 별개의 일임을 확신했고, 나도 그 속에 있을 거라는 미약한 확신에 슬펐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생각은 우리 모두가 평범 속에서 '악의 평범성'에 속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모두는 '정의의 삶'을 원한다. 그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수도, 그저 선한 의지일수도 있지만, 우리의 큰 사회가 결국 비교적 가장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그런 삶을 희망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정의에 가까워져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악의 평범'에 속하는 사람들이 됐을 때 가장 무서운 점은 '악의 사회'는 시간이 흘러서 사라지고 '정의의 사회'는 분명히 다시 돌아오기에, 돌아온 그 때부터, '남은 인생이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악을 저질러서라도 속하고 싶던 평범에 결코 속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고민의 활동을 통해 생긴 신념은 '내 힘이 닿을 때까지 고민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평생을 고민하는 삶을 위해서는 '가해자 연대'가 활동하게 하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고하지 않는 무관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사회의 모두가 그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깨부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행동으로 옮겨져 다수가 됐을 때 가해자 연대를 없애고 정의의 사회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고민은 가해자의 이유보다는 피해자의 상황에 더 이입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를 아닐까' 싶었다.

◆ 성** : 1회 차 활동을 통해 악과 평범성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고 2~5회 차를 통해 악의 개념, 악과 악의 주체의 특징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6회 차에는 악의 주제들의 행동을 통해 평범함에 의문점을 가지게 됐고 마지막 8회 차를 통해 내가 추구했던 평범함의 형태와 악으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는 정의에 평범함에 대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처음 악과 평범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읽으며 '맹목적인 복종 즉, 시체들의 복종'을 통해 악이란 '무관심' 그 자체라고 생각했다. 아이히만의 '양심'의 부재한 행동과 아이히만에 대한 법적 판결을 읽으면서 평범함은 '양심'에 기반한 사회의 공동합의의 따른 가치이며 책을 읽기전 까지만 해도 평범함의 기준이 된다고 믿었던 법은 사회정립과 존속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평범함을 대표해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2회 차에 본격적으로 악과 평범함의 개념에 대해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는 주체는 평범한가?'에 대해 토의했다. 토의 과정에서 자신이 악을 행하는지 모르고하는 악행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악의 평범성'은 존재 할 수 있으며 악은 '상대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됐다. 전쟁에서 알아보는 악의 평범성과 현대사회의 악의 평범성 사례를 찾으면서는 악의 형태와 특징에 대해 집중할 수 있었다. 악은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하관계가 복종관계로 전환되는 순간 발생한 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관심은 많은 악을 수용하게 만들고 사회에서 악을 평범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도 느꼈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과 욕자를 통해 악은 확실히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주체적이라는 특징'을 알 수 있었다. 권력과 억압 없이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악을 주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은 평범함 일상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걸까? 라는 의문점이 들었다. 동시에 옥자에 등장하는 도살장 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악의 평범함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다시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6주차 활동에서 n번방 사건으로 악의 평범성에 대해 의논하며 인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사라졌다. n번방의 주축들은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겪을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고통위에서 자신들이 군림하는 행태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평범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에 대해 굉장한 혼란이 왔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평범함의 개념을 정리 할 수 있었다. 인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선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평범성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사회 정의 지키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악의 평범성은 존재할 수 있지만 악의 평범성의 악의 주체들의 악한행동의 변명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 북클럽 활동을 통해 '무관심하지 않겠다.' 다짐했다. 사회의 예민함이라고 칭하는 모든 것들을 관심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의 관심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의 선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나타낼 것이다.

◆ 한** : 7회차 동안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책을 읽고 토의를 하면서 조금씩 달라진 생각들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활동을 하기 전에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악의 평범성은 집단과 권력에 의해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게 되었다.

1회차에서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읽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평범성의 개념을 스스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로, 악을 '윤리적인 인간의 도덕성을 저버리는 일'로 정의 내릴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회차 활동인 『세상에 발자취를 남긴 생각의 천재들』을 읽은 후 '악의 평범성'이라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악의 주체들의 변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의 주체들은 평범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3회차에서는 『나는 아우슈비츠의 약사입니다』를 읽고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직원으로 일하던 독일군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더 이상 작업이 불가능했다는 부분을 보고 나서 '비도덕과 비윤리가 강요되는 시기에도 윤리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악의 평범성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악의 평범성' 범위를 확장시켜 현대사회에서도 '악의 평범성'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4회차에서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을 읽으면서, 환경을 다루기에는 1회차에서 정의한 '악'의 개념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악'을 '이익을 위해 윤리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라고 재정의해서 읽었고 인간과 동물 간의 이슈도 넓게 확장한 '악의 평범성'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책에서 동물과 환경을 분리하여 짚어주는 것을 보고, 내가 동물과 환경을 같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5회차에

서 영화 옥자를 통해 더욱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었다. 4회차에서 정리한 확장시킨 ‘악의 평범성’ 범위 중, 특히 인간과 동물이라는 종의 차이에서 오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어느 ‘악의 평범성’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환경과 동물을 따로 두고 생각한다면, 동물을 우선시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6회차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를 읽고 나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N번방 가해자들이 ‘악의 평범성’에 속할 수 없는 근거인 한나 아렌트의 무사유와, ‘악의 평범성’의 특징을 근거로, ‘악의 평범성’을 현대 사회 문제들에 적용시키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변명거리를 쥐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3회차에서의 생각과는 반대로 ‘악의 평범성’을 현대 사회에 적용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7회차에서는 『정의는 무엇인가』를 읽으며 칸트의 이론을 수용하여 ‘선한 의지로 행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의의 평범성’이 ‘선한 의지로 행하는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악의 평범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굳히게 되었다.

7회차의 활동들을 진행해오면서 무관심이 악을 만들고, 또 악의 평범을 이루어 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사회 이슈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유로 듣고, 보는 것을 미워했던 내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부끄러웠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관심과 관찰이 악을 방지한다’는 것을 신념삼아 그동안 외면하고 회피하던 것들을 마주하며 그 이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정의의 평범성’을 지켜내 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과정들이 바로 정의의 평범성을 지켜내 가기 위한 올바른 사고 과정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의견이 다른 사람끼리 토의를 해서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과정이 곧 정의의 평범성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들이 의미 있게 진행되려면, 받아들이는 정보들을 골라내서 받아들이는 비판적 사고방식이 꼭 필요하고, 나와는 다른 의견도 배척하지 않을 열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토의 후 느낀점]

◆ 김** : 솔직히 내가 8주차 감상문을 쓰면서, 고민이 됐던 부분은 정말 정의의 사회는 반드시 돌아올까?였다. 지금까지 항상 돌아온 정의의 사회였기에, 분명 돌아올까라 생각했지만,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토론을 하면서 한 팀원이 ‘우리가 하는 이러한 생각과 고민, 논의가 악의 사회로 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행동이지 않을까?’한다는 말에 우리 사회가 현재 수없이 논의하고 있는 것에 감사했고, 다행이라고 여겼고, 이러한 토의가 끝없이 진행되며, 모두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를 위해 팀원이 말한 ‘비판적인 사고’가 나의 신념인 ‘고민’에 필수적 요소가 돼야 하고, 바른 비판론적 고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다른 팀원이 계속해서 변하는 기준과 정의로 악의 평범성에 고민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로 이번 북클럽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간 것 같아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또 셋 모두 악의 평범성의 존재 유무에 대한 생각은 같렸지만, 그와 관련없이 '평범이 악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악을 평범한 사람이 저지르게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악이 평범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 **성**** : 팀원들 모두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주제를 두고 토론을 했지만 한 팀원은 악의 평범성 개념 자체에 대해 집중해 악의 개념과 평범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한 팀원은 악의 개념과 평범성의 개념, 악의 평범성이 이사회에 존재하는 지에 대해 고민하고 정의를 내렸다. 다양한 시각으로 악과 평범성의 개념을 정의해 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히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평범함이 악의 변명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악의 평범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악의 평범에 물들지 않고 정의의 평범함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팀원들과 다함께 고민해 봐서 뜻 깊었다. 북클럽 활동을 통해 사회를 나가 마주할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악에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최고의 선을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한**** : 7회차 동안 이뤄진 생각들의 변화를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보니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신기하고, 뿌듯하기도 했다. 나 말고도 다른 팀원들의 생각의 변화를 같이 정리해보니 변화가 더욱 느껴져서 독서와 토의의 힘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었다. '정의의 평범함'을 지켜내 가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토의하다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표적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방법인 것만 같아서 '작은 약속이라도 어기지 않고, 스스로와의 약속도 잘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단지 호기심으로 같이 이야기하던 주제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각자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뚜렷하지 않게 가지고 있던 신념들이 명확해진 것 같아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된 것 같다.

2021년 12 월 01 일

참가자대표 : 한**